



A publication of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4년 12월/2005년 1월호 No. 5

목차	
특집기획 2004년 개관: 동아시아의 수출통제와 비확산.....1 동북아시아: 중국/일본/북한/한국/대만 동남아시아: 부르나이 다루살람/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버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지역 소식.....19 - 특별 보고: 일본, 3대 무기수출원칙 개정 - 유럽연합(EU)과 중국, 비확산 성명서 발표, 무기수출금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 - 한국, 8,000가지 이상의 무기 기술을 수출 통제목록에 추가할 예정 -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 위험한 화학물질을 통제하는 법률 제정 계획 금수조치 및 제재 체제.....26 - 미국, 중국과 북한의 “완고한 확산자” 제재 역내 불법 거래.....28 - 한국인 사업가, 방사능 물질 수입 혐의로 러시아에서 감금 - 미국과 독일의 회사들, 무기부품을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 - 독일 녹색당, 정부가 수출위반을 묵인했다고 비난	지역 협력.....31 - APEC 회원국, 수출통제와 지역안보 논의 해상 및 항만보안.....35 - 호주, 1,000노트 마일 구역을 설정 지역 요약.....37 국제 지원.....39 - 미국 EXBS 프로그램, 태국과 싱가포르 연수 후원 - 중국 수출통제 관리들, 미국 후원의 친선 프로그램 수료 국제 수출통제 체제.....42 - 2004년 국제 공급국(international supplier regimes) 체제 소식 국제 소식.....46 - 유엔 결의 1540호(UNSCR 1540)에 대한 보고 마감일 지나,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 - IAEA, 이집트의 비신고 핵 활동 조사 중 워크숍 및 컨퍼런스.....53 - 제 17회 수출통제세계화 연례회의
특집 기사: 알 까를로스 세르잘레 디 체리자노(R. Carlos Sersale di Cerisano)와의 대담..... 56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 는 몬트레이 국제학 대학원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의 비확산연구소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에서 격월로 발간됨. 번역은 산업연구원에서 하였음.

특집 기획

2004년 개관: 동아시아의 수출통제와 비확산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는, 먼저 중국이 2004년 5월에 핵공급국 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의 가입국으로 받아들여졌고, 다년간 끌어왔던 일본의 “무기 수출에 대한 3대 원칙”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10월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총회를 개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4년에는 다자간 대화와 세미나를 통하거나, 중국과 일본간의 협약 그리고 미국과 중국간의 협의, 관련 교육회의 및 워크숍을 포함한 양자간 협약을 통한 수출통제 협력을 증대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또한 2004년에는 중국과 북한의 기업들이 이란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수출에 개입되어 있다는 혐의에 따라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중국

중국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했는데, 먼저 비확산과 수출통제에 관련된 비상사태에 대처할 부처간 비상대응 특별체제를 수립하였다.¹ 아직 그 체계의 핵심이 명백해지지 않았지만, 중국 관리들은 이미 공식석상이나 사석에서 새로운 체계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 당국은 관련 문서들을 적극적으로 공표하기 시작했고, 대외활동에 착수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EU), 영국 및 일본 등의 당국자들과 대화하고 협의하였다. 중국의 수출통제 규칙과 관련된 개정안과 최신 변경 안은 정부 웹 사이트에 게시되고 있으며, 이행과 처벌방안에 관한 새로운 포고령과 예고도 함께 게시되고 있다. 또한 중국 무기통제 및 군축협회 (Chin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CACDA]) 등 비정부기구 (NGO) 들이 수출통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이전 보다 활발히 관여하였다. 한 예로, CACDA가 2004년 자치단체 공무원, 세관원 및 기업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민감한 원료의 수출통제에 관한 일련의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²

2004년 5월 25일 중국 상무부 (MOFCOM) 는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에 관한 국내 수출통제 규칙을 위반한 2개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했다.³ 이것은 중국 정부가 수출통제 위반으로 기업을 처벌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기록이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기업 명, 죄목, 부과된 벌금 등 상세한 정보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관련 지방명과 산업 종류 등을 밝힘으로써, 이번 발표는 중

¹ Beijing Review year-end interview with Director-General Liu Jieyi, December 30, 2004, <<http://www.fmprc.gov.cn/chn/wjb/zjg/jks/jksxwlb/t177654.htm>>.

² These activities are noted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Chin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CACDA), <http://www.cacda.org.cn/english/index_e.asp>.

³ “2 Chinese Firms Fined for Violating Missile Export Rules,” *China View*, May 25, 2004,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4-05/25/content_1490243.htm>; “Liang gongsi yin weifan chukou guanzhidi youguan guiding zao xingzheng chufa” (Two Companies Fined for Violating Regulations Related to Export Controls),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5, 2004, <http://www.mofcom.gov.cn/article/200405/20040500225170_1.xml>.

국내 수출통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발표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되었다.⁴

2004년도 중국 수출통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진척은 중국이 5월 말에 NSG에 가입했다는 소식일 것이다. 중국정부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도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2004년에 중국정부는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AG]) 과 바세나르 협약 (Wassenaar Arrangement [WA]) 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⁵ 2004년 12월에 중국은 무기 통제 및 비확산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유럽연합 (EU) 과 체결하였다. [본 호 22 쪽에 있는 관련 기사 참조]

이러한 중대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고자세의 중국 기업들, 특히 “연속적인 확산자”로 보이는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었다. 2004년에 미국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했다. 중국북부산업 주식회사 (China North Industries Corporation [NORINCO]), 중국정밀기계수출입주식회사 (China Precision Machinery Import/Export Corporation [CPMIEC]), 중국만리장성산업주식회사 (China Great Wall Industry Corporation) 등 다수의 기업과, 이름이 큐 씨 첸 (Q.C. Chen) 으로 확인된 개인이 지난 수년간 반복해서 제재를 받았다.

2004년 4월에 중국북부산업 주식회사 (NORINCO), 중국정밀기계수출입주식회사 (CPMIEC), 베이징광전자기술연구소 (Beijing Institute of Opto-Electronic Technology [BIOET]), 동양과학계기 주식회사 (Oriental Scientific Instruments Corporation [OSIC]) 그리고 지보 চে멧 장비플랜트 (Zibo Chemet Equipment Plant), 일명 지보 চে멧 장비 주식회사 (Zibo Chemet Equipment Corporation) 와 চে멧 글로벌 (Chemet Global Ltd.) 가 이란에 대한 WMD 관련 이전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⁶ 2004년 9월 20일에는 주요 중국기업인 싱시다이 그룹 (Xinshidai Group [중국 신세대 그룹]) 도 미사일 확산 활동에 종사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고, 9일 후인 2004년 9월 29일에 중국만리장성산업주식회사, 남부산업과학기술무역주식회사 (South Industries Science and Technology Trading Co, Ltd.), LIMMT 경제무역주식회사 (LIMMT Economic and Trade Company, Ltd.) 와 함께 중국북부산업 주식회사 (NORINCO), 베이징 광전자기술연구소 (BIOET), 동양과학계기주식회사 (OSIC) [4월에 이미 제재를 받았었던 기업들] 가 제재를 받았다. 2004년 11월에는 핵 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수출품을 이란으로 선적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중국 기업 4개사에 대해 미국정부가 제제조치를 취하였다. 제재를 받은 중국 기업들은 리아오닝 지아위 금속광물 주식회사 (Liaoning Jiayi Metals and Mineral Company Ltd.), 화창타이 주식회사 (Wha Cheong Tai Company Ltd.), 상하이 트리플 인터내셔널 (Shanghai Triple International Ltd.) 과 큐 씨 첸이다.⁷ 2004년 12월 하순에는 이미 이전에 제재를 받은 바 있는 중국북부산업 주식회사 (NORINCO), 중국만리장성산업 주식회사, 화창타이 주식회사, 지보 চে멧 장비 주식회사를 포함한 7개 기업에 대해 제재가 가해졌다. 큐 씨 첸으로 알려진 개인도 베이징 엘리트 기술회사 (Beijing Elite Technologies Company) 와 함께 제재를 받았다. [본 호 26 쪽에 있는 관련 기사 참조] 이렇듯 계속되는 제제조치가, 중국의 MTCR 가입이 논란의 대상으로 남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⁸

⁴ “Two Chinese Companies Fined for Violating Regulations on Missile Export Control,”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June 2004,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6.pdf.

⁵ Beijing Review year-end interview with Director-General Liu Jieyi, December 30, 2004, <http://www.fmprc.gov.cn/chn/wjb/zzjg/jks/jksxwlb/t177654.htm>.

⁶ Department of State, “Public Notice 4680,” Federal Register 69:67, April 7, 2004, <http://wais.access.gpo.gov>.

⁷ Mike Nartker, “United States Imposes Sanctions against Chinese Firm,” *Global Security Newswire*, September 22, 2004, <http://www.nti.org>; Wade Boese, “U.S. Imposes Iran-Related Sanctions,” *Arms Control Today*, 35:1, January/February 2005, http://www.armscontrol.org/act/2005_01-02/Iran_Sanctions.asp.

⁸ Mike Nartker, “Missile Meeting to Discuss Chinese Membership” *Global Security Newswire*, October 4, 2004, <http://www.nti.org>.

일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핵 활동을 우려하는 일본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왔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내 수출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통해 북한 핵 환적을 막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안보 회의에서 수출통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2004년 1월 5일에 일본정부는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내용과 수혜국의 수출통제 단속 능력을 연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변경된 ODA 현장에 따르면, 일본은 지역 전반에 걸쳐 수출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ODA를 사용하게 된다.⁹ 또한 일본은 수출통제의 개선, 그리고 의심되는 화물선과 항공기의 검사와 항해금지를 담당할 아시아 국가들의 전문가와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세미나를 여러 차례 열었다.¹⁰ 일본은 싱가포르와 홍콩과의 협약에 조인함으로써 수출통제 협력을 위한 협약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각각의 협약에서는 양국간의 협력과 의심스러운 수출품의 감시를 지원할 상호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규정하였다.¹¹

일본은 수출통제에 관한 2개의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제12회 연례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12th Annual Asian Export Control Seminar) 가 10월 도쿄에서 열렸으며 여기에 파키스탄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을 포함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였다.¹² 같은 달 도쿄에서 제2회 아시아 수출통제회의 (2nd Asian Export Control Dialogue) 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호주, 중국, 일본, 홍콩, 대한민국, 싱가포르, 태국 및 미국 대표들은 “도쿄 원칙”으로 알려진 새로운 수출통제 원칙에 합의하였다. 도쿄 원칙은 각국 정부가 엄격한 수출통제를 확립하고, 환적을 통한 불법 수송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그리고 아시아에서 효과적인 수출통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단속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의 강력한 지원국이며,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량살상무기 PSI 훈련을 주최한 국가가 되었다. “팀 사무라이 (Team Samurai)” 라고 명명된 이 훈련은 2004년 10월 하순에 열렸으며, 일본, 미국, 프랑스 및 호주에서 약 900여명의 군인과 18개국의 참관자들이 참석하였다.¹³

일본은 또한 정부 대 기업 분야에서 국내 통제수출통제규칙과 조치에 대한 중요한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일본정부는 수출통제목록을 개정하면서 통제 대상 품목을 추가하였고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루된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업과 단체의 목록을 확대하였다.¹⁴ 일본정부는 또한 무기와 무기 관련 부품의 수출을 사안별로 허가하기 위해서 “3대 무기수출원칙 (Three Arms Export Principles)” 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 호 19쪽 관련 기사 참조]

⁹ “Japan’s ODA to Promote Export Controls in Other Asian Nations,”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 2004, p. 8, <http://www.cns.mi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4.pdf>.

¹⁰ Katsuhisa Furukawa, “New Developments in Japan’s Export Control Policy,”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 2004, p. 17, <http://www.cns.mi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4.pdf>.

¹¹ Katsuhisa Furukawa, “New Developments in Japan’s Export Control Policy,”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 2004, p. 17, <http://www.cns.mi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4.pdf>.

¹² “The 12th Asian Export Control Seminar Agenda,” on the Center for Information on Trade Security Control (CISTEC) Website, <<http://www.cistec.or.jp/open/service/intlcoop/>>.

¹³ “Team Samurai: Bringing PSI to Asia,”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November 2004, p. 11, <http://www.cns.mi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10.pdf>.

¹⁴ “The 12th Asian Export Control Seminar Agenda,” Center for Information on Trade Security Control (CISTEC) Website, <<http://www.cistec.or.jp/open/service/intlcoop/>>.

북한

2004년 1월에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존 루이스 (John Lewis) 와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의 전 소장인 지그프리트 헤커 (Siegfried S. Hecker) 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 사절단이 영변 핵 시설을 방문하였다. 사절단은 합의체제 (Agreed Framework) 하에서 봉인된 사용 연료들이 임시 저장시설에서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 담당자는 헤커 박사에게 플루토늄 성분으로 구성된 금속 조각을 증거물로 제시하였으나, 헤커 박사가 진단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것이 플루토늄인지 아닌지, 만약 플루토늄이라면 언제 재처리된 것인지 확인하지는 못했다.¹⁵ 2004년 2월과 6월에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2, 3차 6자 회담에 참석하였다. 6월의 3차 회담에서 북한은 북한의 핵 시설 동결과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회복 불가능한 폐기”를 주장한 미국의 제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거부하였다.¹⁶ 4차 회담은 9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북한이 참석을 거부하였다. [2005년 1월 현재 더 이상의 회담 계획은 없으나 올해 초에 또 한 차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2004년 12월에 남북한은 군사분계선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북한 개성 시에 개성산업단지를 개설하였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민감한 원료와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공작기계 분야에서의 이전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높아졌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북한정부는 미국정부가 남북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와해하고 남북간 협력과 북한의 경제개발을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¹⁷ 미국 군 당국자들은 남한을 출발한 수송 트럭 중 일부가 개성산업단지에 도착하기 전에 주 도로에서 이탈하는 것이 목격되었다며, 개성산업단지로 유입되는 일부 원료와 연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⁸

북한은 지난 10월 일본 영해에서 실시되었던 “팀 사무라이” 훈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북한의 언론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목적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⁹ 2004년 9월 29일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WMD 관련 이전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의 금융기관인 창광신용은행 (Changgwang Sinyong) 에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창광신용은행은 2000년 이후로 미국의 제재조치를 4번 받았다.²⁰ 2004년 12월 27일에 미국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목록에 의해 금지된 원료나 기술을 이란에 이전한 혐의로 북한 기업인 백산협동주식회사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¹⁵ Siegfried S. Hecker, “Vis it to the Yongbyon Nuclear Scientific Research Center in North Korea” Statement for a hearing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January 21, 2004; “Spokesman for DPRK FM on U.S. Professor’s Visit to Nyongbyon Nuclear Facility,” Korean Central News Agency, January 10, 2004, <<http://www.kcna.co.jp>>.

¹⁶ “DPRK Foreign Ministry Spokesman on Six-Party Talks,” Korean Central News Agency, June 28, 2004, <<http://www.kcna.co.jp>>; Charles Whelan, “NKorea (sic) Rejects ‘Unrealistic’ US Offer but Calls Nuclear Talks Positive,” Agence France Presse, June 28, 2004,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¹⁷ “U.S. Obstructions to Construction of Kaesong Industrial Zone Assailed,” Korean Central News Agency, November 6, 2004, <<http://www.kcna.co.jp>>.

¹⁸ Interviews with anonymous military officials by Daniel A. Pinkston, Seoul, December 2004.

¹⁹ “KCNA Assails Projected Joint Naval Exercise,” Korean Central News Agency, October 25, 2004, <<http://www.kcna.co.jp>>; Eric Talmadge, “Under U.S. Initiative, Japan Hosts Round of WMD Interception Drills at Sea,” Associated Press, October 26, 2004,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²⁰ “Chinese, DPRK Firms, and Indian Scientists among Those Sanctioned by U.S. Government for WMD Proliferation to Iran,”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November 2004,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10.pdf>.

어떤 원료나 기술이 이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²¹

한국

한국은 2004년 10월에 서울에서 MTCR 총회를 주최하였다. 34개 가입국을 대표한 약 220명의 참석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및 중동의 미사일 확산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의하였다.²² 6월에 한국은 WMD 및 관련 원료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진 8개국이 구성한 대량살상무기 및 원료의 확산방지를 위한 전 세계 협력체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에 가입하였다.²³ 2004년 12월에 국방부는 97가지 무기 체계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는 8,023가지 기술을 포함한 수출통제표준을 수립하였다.²⁴ [본 호 24쪽에 있는 관련 기사 참조.] 더 나아가 한국의 수출업자들이 수출통제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보 센터 그리고 초기 정보교환소로 비정부기구인 전략물자통제센터가 개설되었다.²⁵

한국이 지속적으로 기술 단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수출통제 관련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서 2004년에 수출통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산업자원부 (MOCIE) 는 한 한국기업이 신경작용제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 107톤을 중국 기업에 수출하였고 이후 2003년 6월과 2004년 9월 사이에 이 화학물질이 다시 북한으로 선적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청은 1998년과 2004년 사이에 7만 7천 톤 이상의 시안화나트륨이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선적되었다고 밝혔으나 얼마나 많은 시안화나트륨이 해당 국가들 또는 다른 국가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²⁶ [편집자 주: 화학무기협약(Chemical Weapon Convention [CWC]) 의 가입국인 말레이시아는 화학무기 개발국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도 CWC의 가입국이고 1997년에 해당협약을 비준하였다.] 2004년 2월에 산업자원부가 한 한국기업을 고발 조치했는데 이는 리비아에서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기의 균형을 잡는데 사용되는 한국산 기체가 국제핵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 의해 발견된 이후에 이루어졌다.²⁷ 해당 기체는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으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 가 1982년에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2000년에는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법을

²¹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Nonproliferation, Public Notice 4946, Federal Register, Vol. 70, No. 1, January 3, 2005; David E. Sanger, "U.S. Is Punishing 8 Chinese Firms for Aiding Iran," *The New York Times*, January 18, 2005, p. 1.

²² "ROK'S Yonhap" MTCR Meeting Calls for Stricter Control of Missile Proliferation," Yonhap News Agency, October 8, 2004, in FBIS KPP20041008000043.

²³ Lee Sun Jin, "To Prevent WMD Falling into Wrong Hands," *Korea Herald*, June 17, 2004, p. 13, in KINDS, <<http://www.kinds.or.kr>>.

²⁴ Yoon Won Sup, "S. Korea to Control Technology Exports," *Korea Times*, December 22, 2004, in KINDS, <<http://www.kinds.or.kr>>; Jang Il Hyeon, "Export Controls to Safeguard Military Technology," *Chosun Ilbo*, December 22, 2004,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412/200412220026.html>>.

²⁵ South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Kaesonggongdan saopch'ujin hyonhwang," December 31, 2004, p. 4, <<http://www.unikorea.go.kr>>.

²⁶ "ROK's Yonhap: More Chemical Weapons Material May Have Been Shipped to N. Korea," Yonhap News Agency, September 25, 2004, in FBIS KPP20040925000002; Agence France Presse, September 24, 2004, in "AFP: ROK Says Sodium Cyanide Shipped to North Korea via China Sep 2003," FBIS Document ID: JPP20040924000085.

²⁷ "ROK Accuses Domestic Firm of Exporting WMD-Related Equipment to Libya," Yonhap News Agency, February 11, 2004, in FBIS KPP20040211000104.

이용하여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러 한국 연구소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 두 가지 기술은 핵무기의 핵으로 쓰이는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실험사실에 관한 정보는 2004년 4월에 국회가 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 사찰에 대한 추가규약 (Additional Protocol [AP])을 비준한 이 후인 그 해 여름에 밝혀졌다. 추가규약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관해 상세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IAEA의 사찰권을 확대하고 있다. 2,000회에 걸친 부주의한 우라늄 농축실험에 대한 책임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관할에 있던 원자력통제기술센터 (TCNC)가 2005년 1월 1일부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으로 이전되었다. 원자력통제기술센터는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로 개명되었고,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는 “핵물질의 통제와 관리,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대응 창구, 수출통제와 핵공급그룹에서의 한국 대표, 핵 안전과 물리적인 보안”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²⁸

상기에 언급했듯이, 남북한은 2004년 12월 북한에 개성공단을 개설하였다. 한국 정부는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범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2개 기업은 당초 개성으로 보내려고 계획했던 물자 목록에서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서도 2005년 1월 말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²⁹ 한국 정부 관리들은 개성공단 내 공장들이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할 것이며 개성을 통해서 민감한 원료나 기술이 결코 북한으로 이전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⁰

대만

대만의 국제적 지위가 모호하고 국제기구와 다자간 기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내 수출통제를 진척하는데 계속 제약을 받고 있지만, 대만은 발달된 화학, 컴퓨터 및 전자 산업 때문에 이중용도 품목과 이중용도 기술의 주요 공급국이 될 가능성이 많은 국가이다. 2004년 대만의 수출통제체제는 다자간 체제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2004년 2월에 미국 수출관리담당 부차관보인 매튜 보만 (Matthew Borman) 과 미국 Department of State의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직원들이 대만 소재 미국 연구소 (American Institute) 의 미국 사무소에서 대만 경제부 해외무역국의 고위 관리들과 만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에 관해 논의하였다.³¹

대만의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시도가 정파간 논쟁, 특히 중국 본토와의 무역에 주는 충격과 관련된 논쟁으로 인해 후퇴하였다. 중국과 대만간의 점증하는 기술 무역에 있어 안보적 의미를 다루는 여러 법안들이 의회내 범청색연합 (Pan Blue Party) 과 범녹색연합 (Pan Green Party) 의 이견으로 인해 여태까지 답보상태였으나 현재 의회 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 사이에 대만 기업들의 수출통제 위반은 계속되고 있다. 2004년 4월에 대만 기업인 구드리 산업주식회사 (Goodly Industrial Company Ltd.) 가 이란 확산금지법 (Iran Nonproliferation Act) 에 의거해 미국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³² 2004년 12월 27일에 대만 기업인 에코마 엔터프라이즈 (Ecoma Enterprise) 가 역시 이란 확산금지법 위반으로 미국 국

²⁸ Daniel A. Pinkston, “South Korea’s Nuclear Experiments,” CNS Research Story, November 9, 2004, <<http://cns.miiis.edu/pubs/week/041109.htm>>.

²⁹ “DPRK, ROK Anticipate benefits, Obstacles to Kaesong Industrial ZoneMultimedia,” February 24, 2004, FBIS Report KPP20040224000111; “ROK’s Yonhap Weekly North Korean Review 9-15 Dec 04,” Yonhap News Agency, December 16, 2004, in FBIS KPP20041216000019; “Approval of Cooperative Business Partnership and Projects for Two Additional Companies in the Model Site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outh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Press Release, January 26, 2005, <<http://www.unikorea.go.kr>>.

³⁰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interviewed by Daniel A. Pinkston in Seoul, fall 2004.

³¹ Department of Commerce, “Transshipment Country Export Control Initiative: Notable Events and Accomplishments,” <<http://www.bxa.doc.gov/ComplianceAndEnforcement/NotableAccomplishTECI.htm>>.

³² Department of State, “Public Notice 4680,” Federal Register 69:67, April 7, 2004, <<http://wais.access.gpo.gov>>.

무부 비확산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³³

동남아시아

2004년에 동남아시아 전역의 경제 사안과 해운보안 사안에 대한 수출통제의 역할이 지속되었으나, 이 지역에서의 비확산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많은 조치들은 훼손된 것으로 보였다. 미국, 일본 및 호주가 후원한 2004년 컨퍼런스와 워크숍에 동남아시아 국가의 유력한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동남아시아협력기구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회의는 수출통제 강화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기에 언급한 대로 2004년에 일본은 수혜국들이 받게 될 개발지원금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로 수출통제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특히 수출통제 및 관련 국경보안지원 (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 Assistance [EXBS]) 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교육 활동을 후원하였다. 2004년 말에 개최된 2차례 회의 즉, 10월에 도쿄에서 열렸던 제 12회 연례 아시아 수출통제세미나와 11월에 시드니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핵 안전조치 및 안보 컨퍼런스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적극 참여한 사실은 내년에도 비확산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임을 의미한다. 두 차례 회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회의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하였다.

부르나이 다루살람

동남아시아협력기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의 가입국인 부르나이는 수출통제와 비확산에 관한 2004년 지역 회의에 참석하였다. 부르나이는 도쿄에서 개최된 제12회 연례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에도 참석하였고 시드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핵 안전조치 및 안보 컨퍼런스의 장관관료 회의에도 참석하였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부르나이는 2004년에 국내 수출통제체계를 강화하고 명료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현재 부르나이는 이중용도 품목이나 대량살상 무기 관련 무역에 거의 중사하고 있지 않다. 수출품의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 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에너지 산업은 정부 수입의 88% 그리고 국내총생산 (GDP) 의 53%를 차지한다.³⁴ 한편 부르나이는 석유화학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실행 중에 있으며, 또한 풀라우 무아라 베사르 (Pulau Mulau Besar) 에 컨테이너 전용 대규모 항구를 건설 중이다. 정부 관리들은 2009년까지 가동될 이 항구가 이 지역의 환적 산업을 최고 5%까지 유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³⁵ 부르나이가 자국의 경제를 다변화하고 환적 산업의 점유율을 증대함에 따라 민감한 품목에 대한 부르나이의 수출통제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³³ Department of State, "Public Notice 4946," Federal Register 70:1, December 27, 2004, <<http://wais.access.gpo.gov>>.

³⁴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Brunei Darussalam: Economic Outlook," *TradeWatch*, <<http://www.tradewatch.dfat.gov.au/TradeWatch/TradeWatch.nsf/vEconomicWeb/Brunei%20Darussalam>>.

³⁵ CT Hj Mahmud, "Pulau Muara Besar: Brunei's World-Class Transshipment Hub," *Borneo Bulletin*, December 16, 2004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캄보디아

2004년 1월에 일본의 경제통상산업성 장관인 쇼이치 나카가와 (Shoichi Nakagawa) 는 프놈펜 방문 중에 일본이 캄보디아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³⁶ 캄보디아는 2004년 5월과 7월에 수출통제와 비확산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던 동남아시아협력기구 지역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에 참석하였다. 캄보디아는 제12회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와 아시아-태평양 핵 안전조치 및 안보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였다. 캄보디아는 2004년 11월에 일본이 주관한 “팀 사무라이” 훈련에 참관자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지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³⁷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부패, 법률의 규칙의 부재, 불충분한 역량 등 지속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국내 수출통제를 개선하려는 캄보디아의 노력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³⁸ 캄보디아에는 이중용도 품목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무역을 할 수 있는 산업기반은 없지만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는 문제로 남아있다. 캄보디아 내분의 역사로 미루어 볼 때 상당 양의 무기 - 50만 정에서 100만 정의 소형 무기 - 가 거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밀수와 마약 거래도 성행하고 있는³⁹ 점을 고려하면 캄보디아가 WMD 관련 이전 통로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지역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협력기구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음] 와 APEC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 지역에 속한 국가로서 비확산, 수출통제 및 해운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최된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2004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는 2004년 4월에 열린 NPT의 검토 회의를 위한 조약준비 위원회의 의장국이기도 했으며 10월에는 도쿄에서 개최된 제12회 연례 아시아 수출 통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는 인도네시아가 산업계의 통제수출통제규칙 준수를 확고히 하는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정부 부처간의 협력에 있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⁴⁰ 2004년 11월에 아시아-태평양 핵 안전조치 및 안보회의에 참석차 모인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핵 안전조치 및 안보 협력에 관한 협약에 조인했다. 이 협약에 따른 기술적 프로젝트들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IAEA의 원료보호 활동, 통제 활동 및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을 증대하게 될 것이다.⁴¹

인도네시아는 NPT과 CWC 등 전통적인 다자간비확산 협약을 지지하는 반면 최근의 반 확산 활동,

³⁶ “Japan to Help Cambodia Tighten Export Control,” Jiji Press Ticker Service, January 15,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³⁷ “Team Samurai: Bringing PSI to Asia,”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November 2004, pg. 11,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10.pdf>.

³⁸ “Report: Cambodia Must Tackle Corruption to Improve Economy,” Website of the World Bank Group, <<http://www.worldbank.org>>; “Cambodia: Country Brief,” Website of the World Bank Group, <<http://www.worldbank.org>>.

³⁹ U.S. Drug Enforcement Agency, “Cambodia: Country Brief,” *Drug Intelligence Brief*, <<http://www.usdoj.gov/dea/pubs/intel/02003/>>.

⁴⁰ Member of U.S. delegation to the Asia Export Control Seminar, October 2004, discussion with Stephanie Lieggi, November 2004.

⁴¹ “U.S. and Indonesia Sign Nuclear Security Arrangement,”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Issue 4, October/November 2004, p. 11,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10.pdf>.

특히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해적이 중요한 관심사인 말라카 해협에서의 안보에 관여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미심쩍어 했다.

평론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국내 수출통제체계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해적과 밀수 같은 문제들이 국내 정책수립에 있어 비확산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또한 비동맹운동 (Non-Aligned Movement)의 일환으로써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수출통제체계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수출통제체계를 경제발전의 장애물로 보았다. 그러나 2004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심한 테러 공격을 받으면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원료의 유통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필요성을 수용할 태세가 보이고, 다수의 자국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환적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듯하다. 내년에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수출통제와 비확산법의 시행이 강화되는데 있어 미국과 일본 같은 국가의 지원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압둘 콰디어 칸이 이끄는 핵 밀매 조직에 대한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2004년 상반기에 말레이시아의 수출통제 정책과 비확산 정책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2004년 2월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립국방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스리랑카의 사업가 부하리 시에드 아부 타히르 (Buhary Syed Abu Tahir) 가 칸의 핵 밀매 거래에서 “재정 이사 및 돈 세탁 담당”이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부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전해진 스코미 정밀 엔지니어링 (SCOPE) - 말레이시아의 화학, 정유, 가스 제별인 스코미 그룹의 계열기업 - 을 문체기업으로 지명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스코미 정밀 엔지니어링과 그 모기업인 스코미에 대한 미국의 적발에 크게 당황했다. 왜냐하면 스코미의 최대주주가 말레이시아 수상 압둘라 바다위 (Abdullah Badawi) 의 아들인 카마루딘 압둘라 (Kamaluddin Abdullah) 이며, 스코미의 회장인 아스맛 카마루딘 (Asmat Kamaludin) 은 말레이시아 국제무역부의 전 총서기였기 때문이다. 스코미의 임원들은 압류된 부품의 최종 목적지를 알지 못했으며, 그 부품이 석유가스 산업용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3개월간에 걸친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후 스코미의 임원들은 범죄 혐의를 벗었다. 타히르는 칸이 이란과 리비아에 핵 기술을 이전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으나 타히르의 행위가 말레이시아 법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⁴²

스코미를 둘러싼 문제들이 밝혀진 직후, 말레이시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의무화된 포괄적 안전조치 협약에 대한 추가규약 (Additional Protocol) 에 조만간 조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2004년 3월에 당시 미국 비확산 담당 차관보였던 존 울프 (John Wolf) 가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다. 닷옥 세리 시에드 하미드 알바 (Datuk Seri Syed Hamid Albar) 외무부장관은 “말레이시아는 그 사안에 대해 당분간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떠한 추가 규약에도 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⁴³ 2004년 12월에 말레이시아는 화학분야에서 화학무기협약 관련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본 호 13 쪽에 있는 관련 기사 참조]

⁴² “Politically Connected Malaysian Firm Linked to Nuclear Smuggling Network,”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Issue 1, April 2004, p. 9,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4.pdf>.

⁴³ Farrah Naz Karim, “Malaysia’s Hamid Reaffirms Refusal to Sign Additional Protocols to NPT,” *New Straits Times* (Kuala Lumpur), March 3, 2004.

말레이시아는 이웃국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2004년 초 말라카 해협에서 대량살상무기 PSI 관련 해상훈련을 실시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거부하였고, 대량살상무기 PSI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향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다.⁴⁴ 말레이시아는 2003년 1월 이후 미국의 컨테이너 안보구상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미국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켈랑 항구 (Port of Kelang) 와 탄중 펠라파스 항구 (Port of Tanjung Pelapas) 에 미국 세관원을 각각 한 명씩 상주시킬 것을 검토하는 원칙성명서 (Declaration of Principles) 에 서명하였다. 2004년에 이 두 항구에서 CSI 이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과 공동으로 미국 관리가 화기와 WMD 등 불법 품목을 실은 화물 컨테이너를 검색하고 있다.⁴⁵

미얀마 (버마)

미얀마가 WMD 관련 품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미얀마가 북한과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2004년에도 계속되었다. 3월에 한 미국정부 관리의 의회에 대한 증언에서 북한이 미얀마에 지대지 미사일을 판매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하였다.⁴⁶ 미국 정부는 이전에도 미얀마가 CWC을 비준하고서도 비밀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했었다.⁴⁷ 미얀마가 이미 이 지역의 마약과 무기 거래의 핵심 운송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⁴⁸, 미얀마가 민감한 원료의 환적지가 될 수도 있다. 미얀마 정부의 부패와 정치적 무관심으로 미얀마 국내 수출통제는 여전히 취약하다.⁴⁹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미얀마는 ASEAN의 가입국으로서 수출통제와 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여러 고위급 회담에 참여하였다. 미얀마는 도쿄에서 개최된 제12회 연례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에도 참여하였으며 시드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핵 안전조치 및 안보회의도 참여하였다. 일본정부가 이 지역에서의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2004년 2월에 자국의 사절단을 미얀마에 파견하여 미얀마의 지도부와 수출통제 지원에 관해 논의하였다.⁵⁰

⁴⁴ “Asian States React to Bush Nonproliferation Initiatives,”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 2004, p. 7,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4.pdf>.

⁴⁵ Shi-Chin Lin, “The U.S.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in Asia,”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June 2004, p. 20,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6.pdf>.

⁴⁶ “Myanmar-North Korea Nuclear, Missile Cooperation Alleged,”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 2004, p. 11,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4.pdf>.

⁴⁷ E. J. Hogendoorn, “A Chemical Weapons Atlas,” *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September/October 1997, <http://www.thebulletin.org/article.php?art_ofn=so97hogendoorn>.

⁴⁸ Peter Chalk “Myanmar Leads Rise in Southeast Asian Drug Trade,” *Jane’s Intelligence Review*, December 01, 2004; “Country Profile: Burma,” BBC News online,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country_profiles/1300003.stm>.

⁴⁹ “Burma,” *CIA World Factbook*, [5] “Japan to Send Delegation to 10 ASEAN Nations for Nonproliferation,” Jiji Press Ticker Service, February 5,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⁵⁰ Peter Chalk “Myanmar Leads Rise in Southeast Asian Drug Trade,” *Jane’s Intelligence Review*, December 01, 2004; “Country Profile: Burma,” BBC News online,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country_profiles/1300003.stm>.

필리핀

필리핀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특히 지역 해운 보안을 증강하는데 관심을 보여 왔다. 필리핀은 방사능물질의 안전을 평가하도록 지원하는 미국 국제핵안전자문서비스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Advisory Service [INSServ]) 의 활동을 확대하였다. 최근에 필리핀은 각국이 테러 활동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73호 (UNSCR 1373) 와 관련하여 국경수비와 세관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EU의 보조금도 받았다.⁵¹ 필리핀이 미국의 CSI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리핀 항만 당국은 새로운 국제 해운안전 표준에 따른 정보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향후 CSI에 가입한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엑스레이 기계도 설치하였다.⁵² 필리핀은 PSI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팀 사무라이” 훈련에도 참관자로 참석하였다. 필리핀은 제12회 연례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에도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필리핀 대표는 필리핀정부가 핵 물질과 군수품의 수출 및 이전을 통제하는 규칙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나 CBW 관련 품목에 대한 입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⁵³ 또한 필리핀이 수출통제체제의 가입국이 아님에도 모든 국제 공급국 그룹들에서 규정된 수출통제목록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괄적인 수출통제체제를 보유한 국가에 속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 상거래가 싱가포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수출품과 환적품의 규정강화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싱가포르의 국내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2년과 2003년에 통과된 법안들은 전략 물자 및 관련 기술의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전략물자통제규칙 (Strategic Goods Control Regulations [SGCR]) 이 2004년에 포함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⁵⁴

싱가포르는 다자간 포럼이나 양자간 포럼에서도 수출통제협력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2004년 4월에 일본정부와 싱가포르정부는 민감한 무기원료의 불법 거래가 증가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출통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일본과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이 수출통제강화를 법제화하도록 더욱 촉구할 것이다.⁵⁵

싱가포르는 PSI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동남아시아 최초의 국가이며 일찍이 2003년부터 PSI 훈련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미국행 환적 화물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항구로 2003년 3월 17일부터 컨테이너 안보구상을 도입함으로써, 이 협약을 도입한 아시아 최초의 항구가 되었다. 미국 세관원과 국경수비대 관리 5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싱가포르 당국과 협력하여 모

⁵¹ “Philippines Receives US\$6.5mln Grant from European Body,” *Asia Pulse*, January 5, 2005, in Lexis-Lexis, <<http://web.lexis-nexis.com>>.

⁵² Shi-Chin Lin, “The U.S.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in Asia,”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June 2004, pg. 20,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6.pdf>.

⁵³ Member of U.S. delegation to the Asia Export Control Seminar, October 2004, discussion with Stephanie Lieggi, November 2004.

⁵⁴ Jing-dong Yuan, “Singapore’s Export Control System: An Interview with Singapore Customs Officials,”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ugust/September 2004,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8.pdf>.

⁵⁵ “Bilateral Export Contro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Singapore,”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June 2004,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6.pdf>.

든 미국행 화물을 선적 이전에 검색하고 조사하고 있다.⁵⁶

태국

태국은 중요한 환적지로 여러 건의 이중용도 품목 불법 전송에 관련되어 있었다. 국제 비확산 공동체가 특별히 우려하는 점은 태국이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주요한 북한의 무역 상대국이라는 사실이다. 태국의 화학 산업 부문이 발전하고 있고 태국의 산업 중 일부는 핵과 미사일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문제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 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긴밀한 관계는 태국이 미국의 군사지원과 군사기술을 대규모로 받았음을 의미한다. 태국에서 출발하던 태국을 경유하는 것이든 대량살상무기 관련 이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태국정부는 2004년에 자국의 수출통제체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이었다. 비록 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태국정부는 수출통제규정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⁵⁷ 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 핵사찰 협약에 대한 추가 규약에 서명할 계획이다.⁵⁸ 태국정부는 또한 자국의 수출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과의 협력행사 및 교육 회의를 개최하였다.

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점차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Team Samurai 훈련에도 참관자로 참석하였다. 태국의 라엠 차방 항구 (Port of Laem Chabang) 는 매년 미국 행 컨테이너 수송량에서 20위로 기록된다. 2003년에 라엠 차방 항구가 컨테이너 안보구상에 가입되었다. 그러나 태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마감기한을 두 번이나 연장하였는데, 이는 재정적 제약과 추가비용을 꺼리는 수출업자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화물 컨테이너를 검색하는 엑스레이 기계가 2004년 봄에 설치되었다. 2004년 가을까지 CSI이 라엠 차방 항구에 적용되었으며 미국 세관원들이 이 항구에 파견되었다.⁵⁹

베트남

베트남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2004년 GDP 성장률이 7.7%에 이르렀다.⁶⁰ 이러한 성장은 베트남의 군수품 구매와 소규모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과 맞물려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향후 몇 년간 베트남의 수출통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이 화학무기협약에 가입하기 전에 미국정부 관리들은 베트남이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비난하였다.⁶¹ 1990년 중반 이후의 보고서에서도 베트남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⁶² 이러한 잠재적 마찰 가능성이 있음에도, 베트남은 도쿄에서 개최된 제12회

⁵⁶ Shi-Chin Lin, "The U.S.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in Asia,"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June 2004, p. 20,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6.pdf>.

⁵⁷ Information received from Thai official, November 2004.

⁵⁸ "Fifteen Countries and Regions Attend the 12th Annual Asia Export Controls Seminar,"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November 2004,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10.pdf>.

⁵⁹ Shi-Chin Lin, "The U.S.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in Asia,"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June 2004, p. 20,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6.pdf>.

⁶⁰ "Vietnam's GDP Growth Rate Reaches 7.7 % Despite Difficulties," *Asia Pulse*, January 5, 2005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⁶¹ E. J. Hogendoorn, "A Chemical Weapons Atlas," *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September/October 1997, <http://www.thebulletin.org/article.php?art_ofn=so97hogendoorn>.

⁶² Member of delegation to the Asia Export Control Seminar, October 2004, discussion with Stephanie Lieggi, November 2004.

연례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를 포함하여 국내 수출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들에 참석하였다. 제 12회 연례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에서 베트남 대표는 베트남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통제는 적용하고 있으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법안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중용도 목록이 없더라도 민감한 품목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⁶³

지역 소식

일본, 3대 무기수출원칙 개정

마르크 워블스 (Mark Wuebbels)

일본의 양대 정당인 자민당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과 신공명당 (New Komeito) 은 1년간에 걸친 내부 토론을 거친 후 모든 군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3대 무기수출원칙 (Three Arms Export Principles)” 을 일부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2월 10일에 히로유키 호소다 (Hiroyuki Hosoda) 관방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관련 장비의 생산 및 수출 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이 다소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호소다 관방장관은 이 개정안에 따라 다른 국가에 대한 군수품과 기술의 수출을 사안별로 허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은 일본이 미사일 방어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일본 군수업계의 로비 노력과 그 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군수업계는 수십 년간 집권 자민당 (LDP) 과 견고한 유대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민당 (LDP) 내 보수 세력들은 코쿠산카 (Kokusanka) 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코쿠산카란 일본 국내 군수산업의 재건과 진흥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동안에 미국의 군수물자 수요가 폭주하면서 당시 해체 상태였던 일본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기 전까지 kokusanka 의 초기 지지는 미약하였다. 일본 경제가 가동되기 시작하자 군수품을 생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⁶⁴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쓰라림을 기억하는 국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재무장화를 경계하였다.⁶⁵ 여론의 저항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는 1967년에 “3대 무기수출 원칙” 을 수립하는 내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원칙은 분쟁국가 또는 공산국가 또는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군수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었다.⁶⁶ 1976년에 이 원칙은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무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도 군수품으로 취급한다는 “무기 수출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견해 (Unified View of the Government on Arms Exports)” 에 따라 이 원칙의 취약점이 한층 더 봉쇄되었다.⁶⁷ 이러한 포괄적

⁶³ Member of delegation to the Asia Export Control Seminar, October 2004, discussion with Stephanie Lieggi, November 2004.

⁶⁴ Demand for war material rose to nearly 70% of Japan's exports. Michael J. Greene, *Arming Japan: Defense Production, Alliance Politics, and the Postwar Search for Autonom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p. 10.

⁶⁵ Yoshida Shigeru proved unwilling to support a complete remilitarization. Instead, he argued for what would be known as the “Yoshida Doctrine.” Japan would focus on a developing its economic power and rely on the United States military as a deterrent to potential enemies.

⁶⁶ Demand for war material rose to nearly 70% of Japan's exports. Michael J. Greene, *Arming Japan: Defense Production, Alliance Politics, and the Postwar Search for Autonom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p. 10.

⁶⁷ Jun-ichi Ozawa and Takeshi Ito, “Export Control Policies in Japan: The Current System and Stream of Change,”

인 봉쇄는 kokusanka 지지자들이 Three Arms Export Principles 을 둘러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중단되었다. 1983년에 코쿠산카 지지자였던 야스히로 나카소네 (Yasuhiro Nakasone) 당시 수상이 미국정부와 공동 군사기술 이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미국으로의 기술이전은 제외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으로의 이전이 제한사항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수출금지 때문에 일본 군수업계와 일본 방위청 (JDA) 은 여전히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일본의 군수업계는 무기와 무기 관련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 장비가 외국산 장비에 비해 세 배 내지 네 배 더 비쌌다.⁶⁸ 이러한 높은 비용 때문에 최근 수년간 일본 JDA은 구매계획을 축소해야 했다. 일본 경제인연합회 (Keidanren) 와 군수업계의 로비스트들은 Three Arms Export Principles 이 일본의 수출 실적과 기술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⁶⁹ 그들은 군수산업이 방위 프로젝트와 기타첨단 기술 프로젝트에서 외국 기업과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이러한 프로젝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이익과 군사적 이익을 거둬들이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과 자유 정치 세력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3대 원칙” 개정과 같은 국방 관련 조치를 폭 넓게 고려하기 시작했다.⁷⁰

2003년 12월에 시게루 이시바 (Shireru Ishiba) 일본 방위청 장관이 처음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조항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하였다. 그의 언급은 즉각적으로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New Komeito의 비난과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당시 고이즈미 일본수상은 이시바 장관의 발언을 평가절하 하면서 그의 발언은 단지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의사결정 차원일 뿐이라고 말하였다.⁷¹ 고이즈미 수상의 공식적인 발언은 무기수출 반대여론 (ban) 에 대한 온건한 대응전략으로 보였지만 다른 자민당 의원들은 이시바 장관의 제안에 동조하면서 “3대 원칙”의 확대 해석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2004년 1월 기자회견에서 야쓰오 후쿠다 (Yasuo Fukuda) 관방장관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미국 이외의 다른 파트너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⁷² 이후 같은 달에 자민당 국가방위본부는 이미 제안된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무기수출 금지 대상국을 “UN 결의안에 의해 테러 지원국 혹은 기본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로 등록된 국가”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³ 신공명당 의원들은 처음에 무기수출금지가 “평화주의의 국

Gary K. Bertsh, Richard T. Cupitt, Takehiko Yamamoto, eds., *U.S. and Japanese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6), p. 124.

⁶⁸ “Arms Export Ban Vexes Industry,” *The Daily Yomiuri*, September 24,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⁶⁹ “Kongono boeiryokuseibino arikatani tsuiteboeiseisan gjjutsukibanno kyoukani mukete” (Regarding the Future Course of Defense Capabilities: A Path to Strengthening the Technological Base and Production), Japanese Business Federation Homepage, July 20, 2004, <<http://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2004/063.html>>; “Nihonno anzenhoshouto boueiryokuno arikata-21seikihe muketenotenbou” (The Modality of the Security and Defense Capability of Japan: The Outlook for the 21st Century), Advisory Group on Defense Issues, August 12, 1994, <<http://www.ioc.u-tokyo.ac.jp/~worldjpn/index.html>>.

⁷⁰ Stephanie Lieggi and Mark Wuebbels, “Will Emerging Challenges Change Japanese Security Policy?” Nuclear Threat Initiative Issue Brief, December 2003, <http://www.nti.org/e_research/e3_37a.html>.

⁷¹ “Roundup: Japan Eyes Relaxing Arms -Export Ban Just for Missile Defense,” Xinhua News Agency, January 14,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⁷² “Roundup: Japan Eyes Relaxing Arms -Export Ban Just for Missile Defense,” Xinhua News Agency, January 14,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⁷³ Yoshio Okubo, “Arms Export Ban Outdated,” *The Daily Yomiuri*, August 11,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가의 기동”이라며 “3대 원칙”의 변화에 전면 반대하였다.⁷⁴ 그러자 LDP 지도부는 변화된 안보 상황을 언급하면서 New Komeito 의원들에게 미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 관련 수출과 향후 기타 국가들에 대한 사안별 수출을 검토해 달라고 설득하였다.

“3대 원칙”에 대한 이 새로운 해석은 일본 군수업계의 승리로 보인다. 1983년 나카소네 수상이 미국을 무기수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이후, 일본은 오로지 기술이전을 통한 13건의 미일 공동방위 프로젝트에서만 미국과 협력해왔다. “3대 원칙”의 개정에 대한 언급이 있는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일본정부는 퇴역한 해군 함정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F-35 전투기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재검토하고 있다.⁷⁵

유럽연합(EU)과 중국, 비확산 성명서 발표, 무기수출금지 계속 협의 중

2004년 12월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7차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유럽연합은 상호 이해관계와 관심사에 관한 폭 넓은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전략적 협력강화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비확산과 무기 통제에 대한 공동 성명서 채택의 특이할 만한 점으로 공동 성명서에서 양측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고 인정하였으며, 특히 “테러범들과 기타 비정부 단체에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 및 관련 원료와 기술이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양측은 또한 유엔, IAEA 및 화학무기금지기구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가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고 이 기구들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통해 WMD의 비확산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였다. 중국은 또한 탄도 미사일의 확산을 금지하는 헤이그 행동규약 (Hague Code of Conduct)에 대해 호의적인 언급을 하였다. [편집자 주: 헤이그 행동규약(Hague Code of Conduct)은 탄도 미사일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구상으로, 중국은 이 규약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 규약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며 무엇보다도 각국이 자국의 미사일 보유실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또한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⁷⁶

독일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엄청난 사전 로비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의 공약인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금지의 해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비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기판매금지가 해제되지는 않았으나 양측은 궁극적인 해제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⁷⁷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는 “유럽연합은 무기판매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확인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환영하였고 이것이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 공동 성명서에는 또한 “중국은, 이 사안에 대한 정치적 차별은 용납될 수 없으며 즉시 제거되어야

⁷⁴ “Government Will Not State Ease of Arms Export Ban in Defense Outline,” Kyodo News Service. November 25,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⁷⁵ Japan Mulls Selling Decommissioned Destroyers to Malaysia, Singapore,” *The Daily Yomiuri*, December 22, 2004 in FBIS JPP20041221000157.

⁷⁶ “Joint Decla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EU on Non-Proliferation and Arms Control,” December 8, 2004, Website of the Dutch EU Presidency, <<http://www.eu2004.nl>>; Mike Nartker, “China, EU to Increase Nonproliferation Cooperation,” Global Security Newswire, December 9, 2004, <<http://www.nti.org>>.

⁷⁷ “EU Will Not Lift China Arms Ban,” BBC News online, December 8, 2004.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4077739.stm>>.

한다고 재확인했다.”고 나와 있다.⁷⁸

정상회담에서 무기판매금지 사안이 해결되지는 못했으나 공동 성명서와 이에 뒤따른 유럽연합과 유럽연합회원국 관리들의 발언은 무기판매금지 해제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임을 시사하였다. 사실 유럽연합이 이 문제를 조만간 해결하려 한다는 강한 조짐은 계속 있어 왔다. 유럽연합 의회 의장 및 유럽연합 외교정책 담당관인 자비에 솔라나 (Javier Solana) 는 프랑스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무기판매금지가 향후 6개월 후에는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⁷⁹

아마도 정상회담 이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진척은 과거에 무기판매금지를 해제하는데 한층 조심스러웠던 영국의 입장 변화였다. 잭 스트로우 (Jack Straw)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영국 의회 선출 위원회에서 중국의 인권기록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지만 중국을 짐바브웨나 버마와 같은 범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스트로우 외무장관은 2005년 7월에 영국이 EU의 의장국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무기판매금지가 해제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 낫다.”고 시사했다. 스트로우 외무장관은 2005년 1월 21일 베이징에서 중국 지도부와의 회의 중에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⁸⁰

미국은 EU의 무기수출 금지 해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무기수출금지가 존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유럽연합의 선진 무기를 입수한다면 중국 본토와 대만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무기수출금지가 해제된다면 유럽연합 가입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과 무기개발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압력을 가했다. 미국 국방부는 무기수출금지가 해제된다면 EU은 의회에서 “강한 반발”을 각오하여야 한다고 경고했다.⁸¹

한국, 8,000 가지 이상의 무기 기술을 수출통제목록에 추가할 예정

한국 국방부 (MND) 는 8,023가지의 무기기술 관련 품목을 국내 수출통제목록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조치는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국가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⁸²

97가지의 무기 시스템에 응용되는 8,023가지 품목으로 이루어진 이 목록은 6개의 방위 기술 범주 – 감시, 명령과 제어, 정보전과 전자전, 특수 임무, 정밀 공격 및 기본 전쟁 능력 – 으로 나뉘어 진다.⁸³ 이 목록은 군사적 중요성에 따라 무기 관련 기술을 A, B, C 등급으로 차등화한다. A 등급 기술은 공

⁷⁸ “Joint Statement of the 7th EU-China Summit,” December 8, 2004, Website of the European Union <http://europa.eu.int/comm/external_relations/china/summit_1204/conclusions.pdf>.

⁷⁹ Hu Qihua, “Solana: EU May Lift Arms Ban on China Early Next Year,” *China Daily*, December 9, 2004. <http://www.chinadaily.com.cn/english/doc/2004-12/09/content_398488.htm>.

⁸⁰ “EU China Arms Ban ‘To Be Lifted’,” January 12, 2005, BBC News online, <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4167693.stm>; Jiao Xiaoyang, “Britain Backs EU in Lifting Arms Ban,” *China Daily*, January 22, 2005, <http://www.chinadaily.com.cn/english/doc/2005-01/22/content_411221.htm>.

⁸¹ “Pentagon Warns EU on Sale of Arms to China,” *Financial Times*, December 23,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⁸² “Over 8,000 Weapons Technologies Selected for Export Control,” *Korea Times*, December 23,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⁸³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Guards against Technology Leaks,” Yonhap News Agency, December 22,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개되거나 외국으로 이전될 수 없고, B 등급 기술은 선택적으로 공개되거나 이전될 수 있으며, C 등급 기술은 자유롭게 공개되거나 북한과 이란 등 한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를 제외하면 이전될 수 있다. A, B, C 세 등급별로 각각 1,278 가지, 3,965 가지, 2,780 가지의 기술이 분류되어 있다.⁸⁴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산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1975년에 군수품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그 때부터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수출액이 4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⁸⁵ 현재 바세나르 협약 (Wassenaar Arrangement) 을 본보기로 만들어진 전략물자수출입 공고가 주요 근거법인 대외무역법의 시행규정으로 매년 공포되고 있다.⁸⁶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 위험한 화학물질을 통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

2004년 12월에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는 양국이 비준한 화학무기협약 (CWC)의 전면 시행을 향해 한층 더 나아갔다. 12월 7일 다투크 세리 시에드 하미드 알바 (Datuk Seri Syed Hamid Albar) 말레이시아 외무부장은 화학무기와 그 원료의 소유와 생산,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초안을 말레이시아의 하원 (Dewan Rakyat) 에 상정하였다. 화학무기협약법안 (Chemical Weapons Convention Bill 2004) 은 2005년 봄, 다음 회기 동안에 2차 심의에 들어가서 논의될 것이다. 만약 통과된다면 화학무기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하거나 생산을 지원한 범죄사실이 확정된 개인에게 최고 30년 징역형과 264,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된다. 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법의 시행과 더불어 CWC에 의거한 말레이시아의 의무를 담당할 국가 기관도 구성될 것이다.⁸⁷

방글라데시 수상의 국방 보좌관인 마부부르 라만 (Mahbubur Raman) 이 2004년 12월 9일에 있는 데일리 스타 (The Daily Star) 지와의 회견에서 CWC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설명하였다. 2005년 1월 30일에 개원될 예정인 방글라데시 의회 회기 동안 자국내 화학무기의 개발, 저장 또는 사용을 불법화하는 법률 초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 법률 초안은 법률 위반에 대해 최대 14년의 징역형과 5만 방글라데시 타카 [약 830 달러]의 처벌을 제안하고 있다. 화학무기협약실행법 (Chemical Weapons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2005) 으로 불리는 이 법률 초안에 의하면 정부와 민간의 화학물질 사용을 감독할 국가 기관도 구성될 것이다. 이 국가기관은 또한 OPCW와 방글라데시간의 주요 접촉 창구가 될 것이다.⁸⁸

화학무기협약이 방글라데시에서는 1997년 4월 29일부터,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2000년 5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비록 양국이 화학무기협약의 의무사항을 전면 시행하는데 더뎠지만 이는 결코 특이한 경우가 아니다. 화학무기금지기구에 따르면 2004년 10월 31일 현재 가입국의 82%가 국가기관을 설립하

⁸⁴ Jang Il-Hyeon, "Export Controls to Safeguard Military Technology," *Chosun Ilbo*, December 22, 2004,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412/200412220026.html>>.

⁸⁵ "Weapons Exports Surpass \$400 Million This Year," Website of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cember 22, 2004, <<http://www.mnd.go.kr>>; Yoon Won-sup, "S. Korea to Control Technology Exports," *Korea Times*, December 22, 2004, <<http://times.hankooki.com>>.

⁸⁶ Comparing 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s, SIPRI Export Control Project, <<http://projects.sipri.se/expcon/db1.htm>>.

⁸⁷ "Bill on Chemical Weapons Tabled in Parliament," Bernama (Malaysian National News Agency), December 7, 2004.

⁸⁸ Shakhawat Liton, "Dhaka to Ban Chemical Weapon Production, Use; Bill Seeking Ban to Be Placed in Parliament Soon," *The Daily Star*, December 9, 2004, <<http://www.thedailystar.net>>.

였으나 가입국의 32%만이 개인이나 기업이 CWC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를 유죄화 (Criminalizing Activities) 하는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였다.⁸⁹ CWC의 조항에 따르면 모든 가입국들은 국가 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CWC이 발효되면 조속히 적절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02년 말 이후 미국과 기타 선진국들은 화학무기협약 가입국들이 모든 조항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이 결과 2003년 10월에, 모든 가입국들이 2005년 11월까지 CWC을 시행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실행계획협약이 채택되었다.⁹⁰

금수조치와 제재 체제

미국, 중국과 북한의 “완고한 확산자” (Unrepentant Proliferators) 제재

미국 연방등기소의 공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WMD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원료를 공여한 혐의로 한 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기업들에 비확산 관련 제재를 가했다.⁹¹ 두 차례에 걸친 제재는 이란 비확산법 (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에 따른 것으로 2년 동안 지속된다. 2004년 11월 24일에 발효된 1차 제재는 리아오닝 지아위 금속광물 주식회사 (Liaoning Jiayi Metals and Minerals Company, Ltd.), 큐 쉰 첸 (Q.C. Chen), 화청타이 주식회사 (Wha Cheong Tai Company, Ltd.), 상하이 트리플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Shanghai Triple International Ltd.) 그리고 창광신용주식회사 [북한기업] 에 가해졌다. 리아오닝 지아위 금속광물 주식회사와 상하이 트리플 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이러한 제재조치를 처음 받았지만, 나머지 3개사는 지난 5년간 수차례나 미국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2차 제재는 1999년과 2004년 중반 사이에 행해진 이전 혐의로 중국 기업 6개사, 중국인 1명, 그리고 대만과 북한기업 각 1개사에 가해졌다.⁹² 미연방 등기소의 공고상에는 구체적으로 2004년 12월 27일부터 제재를 받는 기업, 계승기업, 하위 사업단위 혹은 자회사가 하기와 같이 명시되었다: 베이징 엘리트 테크놀로지주식회사 (Beijing Elite Technologies Company, Ltd.); 중국 에어로-테크놀로지 수출입 주식회사 (China Aero-Technology Import-Export Corporation [CATIC]); 중국 만리장성 산업 주식회사 (Great Wall Industry Corporation, 중국); 중국 북부산업 주식회사 (China North Industry Corporation [NORINCO]); 큐 쉰 첸; 화청타이 회사; 지보 চে멧 장비 주식회사; 백산 협동주식회사 [북한]; 에코마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Ecoma Enterprise Ltd., [대만]).⁹³

⁸⁹ *The CBW Conventions Bulletin*, No. 66 (December 2004), p. 16.

⁹⁰ “C- 8/DEC.16: Plan of Act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bligations,”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ctober 24, 2003, <http://www.opcw.org/docs/c8dec16_EN.pdf>.

⁹¹ “Bureau of Nonproliferation; Imposition of Nonproliferation Measures Against Five Foreign Entities, Including a Ban on U.S. Government Procurement,” U.S. Department of State, Federal Register, December 1, 2004, Volume 69, Number 230; “Bureau of Nonproliferation; Imposition of Nonproliferation Measures Against Nine Foreign Entities, Including a Ban on U.S. Government Procurement, and Removal of Penalties from One Entity,” U.S. Department of State, Federal Register, January 3, 2005, Volume 70, Number 1.

⁹² Mike Nartker, “United States Sanctions Chinese, Other Entities for Allegedly Aiding Iranian Weapons Programs,” Global Security Newswire, January 10, 2004, <<http://www.nti.org>>.

⁹³ “Bureau of Nonproliferation; Imposition of Nonproliferation Measures Against Nine Foreign Entities, Including a Ban on U.S. Government Procurement, and Removal of Penalties from One Entity,” U.S. Department of State, Federal Register, January 3, 2005, Volume 70, Number 1.

11월 24일의 제재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아담 어렐리 (Adam Ereli)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무기 확산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는 동안 한가하게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완고한 확산자들이 있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어렐리 부대변인은 “분명히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정부 고위층의 지속적인 관여”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러한 문제를 견고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단속할 수 있는 수출통제 법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⁹⁴

장 쩌웨이 (Zhang Qiyue)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11월 24일의 제재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와 단속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 쩌웨이 대변인은 중국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만약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국이 “법에 따라 그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법을 인용해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⁹⁵ 한 외무부 대변인실 관리는 차이나 데일리 지와 회견에서 12월의 제재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조치가 “매우 무책임하고” “중미 비확산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⁹⁶ 콩 쩌안 외무부 대변인은 정기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반대 입장을 역설하면서 “미국 정부가 객관적 증거가 없이 제멋대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⁹⁷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면 미국 정부기관은 해당 기업들로부터 물품, 기술 또는 서비스의 구매가 금지되고, 해당 기업들과의 기존 판매계약도 종결해야 한다. 더욱이 해당 기업들은 미국 수출법 하에 통제되는 품목의 이전을 위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기존 허가는 무효가 된다.⁹⁸

역내 불법 거래

한국인 사업가, 방사능 물질 수입 혐의로 러시아에서 감금돼

러시아 당국은 2004년 12월 29일에 일본 북단이자 러시아 극동 사할린 섬 남부에 위치한 코르사코브 항구 (Port of Korsakov) 를 통해 고 방사능 물질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43세의 한국인 김종훈을 체포했다.⁹⁹ 빅토르 데도프 (Viktor Dedov) 사할린 지역 검사는 2004년 12월 20일에 러시아 세관원이 김씨의 전국상사 (All Nations Company) 소유물인 방사성 핵종 (radionuclide) 계측기 13대를 실은 컨테

⁹⁴ Adam J. Ereli, U.S. State Department Daily Press Briefing, December 1, 2004, <<http://www.state.gov/r/pa/prs/dpb/2004/39292.htm>>.

⁹⁵ Zhang Qiyue, China's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Press Briefing, 2 December 2004, <<http://www.fmprc.gov.cn/eng/default.htm>>.

⁹⁶ “PRC FM Spokesman's Office: US Sanctions ‘Very Irresponsible,’ ‘Strong Dissatisfaction,’” *China Daily*, January 7, 2005.

⁹⁷ “China Slams US Sanctions against Five Chinese Proliferators,” Agence France Presse, December 2,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⁹⁸ “Bureau of Nonproliferation; Imposition of Nonproliferation Measures Against Five Foreign Entities, Including a Ban on U.S. Government Procurement,” U.S. Department of State, Federal Register, December 1, 2004, Volume 69, Number 230;

⁹⁹ “Radioactive Materials Seized on Sakhalin Island,” RIA Novosti, December 29,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이너를 압수했다고 말했다.¹⁰⁰

러시아 세관원은 화물 컨테이너들 가운데서 계측기를 발견하였는데, 그 계측기의 수취인은 프리고로드노예 (Prigorodnoye) 시 인근에 천연액화가스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한국계 계약회사 (contract company) 였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사할린 지방의 위생 전염병 통제국은 용접 집합 품질을 검사하는 장치로 알려진 해당 방사성 핵종 계측기가 우라늄 동위원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 방사선이 자연방사선 수치의 200배 이상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⁰¹ 그러나 최근의 보도에서는 방사선 수치가 애초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낮다고 전해졌다.¹⁰² 덧붙여 미국 국토안보부의 핵 평가 프로그램 (Nuclear Assessment Program) 에서 시행한 평가에 따르면 그 계측기에서 발견된 우라늄은 “방사능원의 차폐물로 쓰이는 열화우라늄” 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¹⁰³

한국 외무부 관리는 체포사실을 확인하면서 한국기업인 전국상사의 김 사장이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건축 관련 기계를 들여오는데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것 뿐 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 사건은 핵 거래나 그와 유사한 법률위반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¹⁰⁴ 그러나 이타르타스 통신은 그 계측기가 위조서류를 사용해 수입되었다고 보도했다.¹⁰⁵ 김 사장은 비신고 품목을 소지하고 러시아 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공항에서 제지당한 후 러시아 당국의 조사를 받기 위해 감금되어 있다. 그는 2005년 1월 말에 러시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¹⁰⁶

미국과 독일의 회사들, 무기부품을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1월 캘리포니아 소재 항공기 공급업체인 인터에어로 주식회사 (Interaero Inc.)가 중국의 공급업체에 4만 달러 상당의 미사일 및 전투기 장비를 불법 선적한 혐의로 벌금 50만 달러와 집행유예 5년 형에 처해졌다. 2004년 8월 17일에 인터에어로 사가 미국 무기수출 통제법 (U.S. Arms Export Controls Act) 과 국제 무기거래규칙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된 이후 이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 적용된 두 법은 수출허가 없는 군용항공기 부품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¹⁰⁷

인터에어로 사는 2000년 6월에서 2001년 3월 사이 군용항공기 부품을 중국으로 6차례 선적하였다

¹⁰⁰ “South Korean Detained for Smuggling Radioactive Material into Russia,” Interfax News Agency, December 30, 2004, in FBIS CEP2004123000050.

¹⁰¹ “South Korean Company Officer Arrested in Russia over Radioactive Imports,” ITAR-TASS, December 29, 2004, in FBIS CEP20041229000196; “Radioactive Materials Seized on Sakhalin Island,” RIA Novosti; “Probe Opens into Radioactive Cargo Delivered to Sakhalin from South Korea,” RIA Novosti, November 24,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¹⁰² “Open Source Reporting: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uclear Assessment Program, December 2004.

¹⁰³ “Open Source Reporting: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uclear Assessment Program, December 2004.

¹⁰⁴ “Russia Detains ROK National for Importing Radioactive ‘Construction-related Machine,’” Yonhap News Agency, December 30,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¹⁰⁵ “South Korean Company Officer Arrested in Russia over Radioactive Imports,” ITAR-TASS, December 29, 2004, in FBIS CEP20041229000196; “Radioactive Materials Seized on Sakhalin Island,” RIA Novosti; “Probe Opens into Radioactive Cargo Delivered to Sakhalin from South Korea,” RIA Novosti, November 24,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¹⁰⁶ “South Korean to Appear in Russian Court over Nuclear Trade,” Reuters, January 10, 2005, <<http://reuters.com/newsArticle.jhtml?type=topNews&storyID=7278961>>.

¹⁰⁷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Interaero, Inc. Is Sentenced for Illegally Exporting Military Aircraft Parts to China,” November 18, 2004, <http://www.usdoj.gov/usao/dc/Press_Releases/Nov_2004/04429.html>.

고 인정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항공기 장비는 군대 전용으로, 특히 F-4 팬텀 전투기, F-5 타이거 전투기, 호크 미사일에 쓰인다.¹⁰⁸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 구매자에게 항공기 부품과 국방용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밀 수사를 펼친 결과 Interaero사가 적발되었다.¹⁰⁹

법무부에 따르면 Interaero사는 구매자가 중국인임을 알았고, 또한 부품을 이란에 판매할 목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인터에어로사는 부품의 최종 목적지와 최종 사용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중국으로 선적하였다. 국무부는 미국 군수품 목록에 기재된 물품이 중국과 이란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허가제를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이 최근의 사건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였다.¹¹⁰ 케네스 웨인스타인 (Kenneth Wainstein) 검사는 “이 판결은 군용 및 국방용 장비를 취급하는 기업에게 수출통제가 피할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준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¹¹¹

독일 녹색당, 정부가 수출위반을 묵인했다고 비난

독일에서 중국으로의 불법 무기수출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은 독일기업인 MTU 프리드리히샤펜 (MTC Friedrichshafen) 과 도이츠 AG (Deutz AG) 가 군수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고 보도했다. 독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두 회사는 독일법의 허점을 틈타 중국 군대에서 쓰일 잠수함, 구축함 그리고 무장군 수송선용 엔진을 중국에 판매하였다. 독일 녹색당의 정치인은 중국에 대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Gerhard Schroeder) 독일 총리의 무기수출 금지 해제요청을 언급하면서 독일 수출통제 당국이 해당 수출에 대해 알고 있었고 “불법적 관행을 인정하기 위한 사후 시도는”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수출은 인권 침해국으로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 공급을 금지하는 독일 정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었다.¹¹²

지역 협력

APEC 회원국, 수출통제와 지역안보 논의

2004년 11월 17-21일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 21개 회원국 대표들이 “하나의 공동체,

¹⁰⁸ “Aircraft Parts Supplier Slapped with \$500K Fine,” American CityBusiness Journals, Inc., November 23, 2004, <<http://www.bizjournals.com/losangeles/stories/2004/11/22/daily13.html>>.

¹⁰⁹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Interaero, Inc. Is Sentenced for Illegally Exporting Military Aircraft Parts to China,” November 18, 2004, <http://www.usdoj.gov/usao/dc/Press_Releases/Nov_2004/04429.html>.

¹¹⁰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Interaero, Inc. Is Sentenced for Illegally Exporting Military Aircraft Parts to China,” November 18, 2004, <http://www.usdoj.gov/usao/dc/Press_Releases/Nov_2004/04429.html>.

¹¹¹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Interaero, Inc. Is Sentenced for Illegally Exporting Military Aircraft Parts to China,” November 18, 2004, <http://www.usdoj.gov/usao/dc/Press_Releases/Nov_2004/04429.html>.

¹¹² “German Firms Said to Have Sold Defense Material Illegally to China,” BBC Monitoring International, December 2,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하나의 미래” 라는 주제로 지역 내 무역 자유화와 안보에 주로 초점을 맞춘 일련의 회의를 위해 칠레 산티아고에서 만났다. 11월 17-18일에 APEC 회원국의 외무통상무역 장관들이 제16차 장관회의에서 만나 차후 열릴 정상회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제12차 APEC 경제지도자회의가 11월 20-21일에 열리면서 각 회원국 정상들이 칠레의 수도에서 만나 비확산과 수출통제 협력에 관해 비중을 둔 논의를 진행하였다.¹¹³ 또한 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APEC 최고경영자회의가 11월 19-21일에 열렸다.

APEC은 태평양 지역의 21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계하는 협의 기구이다.¹¹⁴ 총괄적으로 볼 때 APEC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약 40%, 세계 무역의 약 50%, 세계 GDP의 약 60%,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약 70%를 차지한다.¹¹⁵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의 핵 위기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참여국 등 10개국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인 이 회담이 아시아 우방국들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다자간 회담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¹¹⁶

정상회담을 마친 후 APEC 정상들은 “산티아고 성명서”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성장과 인류의 안전을 지키고 바람직한 통치를 촉진하는데” 전념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산티아고 성명서는 21개국 환태평양 정상들이 작성한 최종요약서로 “대량살상무기, 그 운반 체계 및 관련 품목의 확산으로 야기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향후 진행도 약속하였다.¹¹⁷ APEC 담당 미국 대사인 로렌 모리아티 (Lauren Moriarty) 는 APEC 활동의 진척에 대해 언급하면서 2003년에 “APEC 정상들이 안보 없는 번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말했다.¹¹⁸ 2004년의 장관회의 및 정상회담에서 이런 맥락이 지속되며 통상과 안보간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APEC 정상들의 논의뿐만 아니라 APEC 장관회의 참석자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도 안보에 대한 우선순위가 강조되면서 하기의 구상이 돋보였다.

- APEC 회원국들은 효과적인 수출통제체제의 핵심요소를 인식하였고 WMD 원료, 장비, 부품 및 기술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합법적인 최종 사용자에게로의 물품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데 합의한다. 알렉산더 다우너 (Alexander Downer) 호주 외무

¹¹³ “Asia-Pacific Leaders Head to Chile for Summit Dominated by Terror,” Agence France Presse, November 19,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¹¹⁴ APEC members include: the United States, Canada, Mexico, Peru, Chile, China, Japan, Republic of Korea, Thailand, the Philippines, Malaysia, Indonesia, Singapore, Vietnam, Brunei, Hong Kong, Taiwan, Australia,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and Russia. As a major part of APEC’s decision-making mechanism, ministerial meetings are commissioned with preparations of the APEC leaders meetings, known as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s, or AELM. Ministerial meetings are also tasked with implementation of the AELM resolutions. For details, see: “Backgrounder: APEC Ministerial Meetings,” Xinhua News Agency, November 17,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¹¹⁵ Lauren Moriarty, U.S. Envoy to the 2004 APEC forum, “Progress Achieved on U.S. Priorities at APEC, Ambassador Says,,” Remarks to the Asia Society, States News Service, December 1,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¹¹⁶ Robin Wright and Mike Allen, “Protesters Greet Bush in Santiago; President Hopes to Use ‘New Capital’ at Summit,” *Washington Post*, November 20, 2004, p.A10.

¹¹⁷ “One Community, Our Future,” 12th APEC Economic Leaders’ Santiago Declaration, November 20-21, 2004. <www.apecsec.org.sg/apec.html>.

¹¹⁸ Lauren Moriarty, U.S. Envoy to the 2004 APEC forum, “Progress Achieved on U.S. Priorities at APEC, Ambassador Says,,” Remarks to the Asia Society, States News Service, December 1,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장관은 이 주제에 관한 장관 회의를 언급하면서 “수출통제, 특히 WMD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의 수출통제에 논의가 집중되었다.”고 말했다.¹¹⁹

- APEC 회원국들은 테러범이 민간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휴대용 항공방위시스템 (MANPADS) 의 통제지침을 수립하였다. 회원국들은 국내 법률 표준과 관례를 이 지침에 맞도록 조정하는데 합의하였다.¹²⁰
- APEC 회원국들은 APEC 전역에 걸쳐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의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SPS]) 규칙의 시행을 지원하는 해운항만보안협약에 합의하였다.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 ISPS은 항만 관리들이 항만 접근통제를 향상시키고 위협을 평가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 또는 그 배송수단을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특별검사절차를 수립하도록 명한다.¹²¹
- APEC 회원국들은 또한 APEC 지역 내 안전무역 (Secure Trade in the APEC Region [STAR])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였다. APEC지역 내 STAR 협약은 APEC 지역 내에서 특정 조치와 마감기한을 통해 물품의 유통과 사람의 유통을 보다 안전하게 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통합 컨테이너 보안체계, 민간 부문에서의 공급망 (supply chain) 보안강화 및 표준화된 세관보고체계를 포함하고 있다.¹²²

2004년 11월 20일에 있는 APEC 최고경영자 회의 폐회식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정부가 지역 내 평화와 안전에 가장 큰 위협거리라고 여기는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APEC 5개국은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단념하도록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청중인 기업 경영자들에게 “의지는 강하다. 단결된 노력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십시오.”라고 연설했다.¹²³

일부 APEC 회원국들은 2004년 회의에서 안보 문제가 지나치게 두드러졌다고 여겼다. 라피다 아지즈 (Rafidah Aziz) 말레이시아 통상장관은 주요 무역 경제 사안을 다룬 주제에서 비껴 나는 “APEC의 일부 선진 경제국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같은 안보에 관한 쌍둥이 의제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APEC 의제를 현재의 경제 영역 너머로 확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⁴ 그러나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오늘날 세계에서 무역 자유화, 안보 및 비확산 수출통제 문제가 서로 얽혀있으며 이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동의하였다.

¹¹⁹ “Joint Statement of the 16th APEC Ministerial Meeting,” Santiago, Chile, November 17-18, 2004.

www.apecsec.org.sg/apec; “Fears of Terrorism Dogging 19 APEC Foreign Ministers: Nukes, Portable Missiles Greatest Fears,” Agence France Presse, November 19,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¹²⁰ “Joint Statement of the 16th APEC Ministerial Meeting,” Santiago, Chile, November 17-18, 2004. www.apecsec.org.sg/apec.

¹²¹ “Joint Statement of the 16th APEC Ministerial Meeting,” Santiago, Chile, November 17-18, 2004. www.apecsec.org.sg/apec.

¹²² Lauren Moriarty, U.S. Envoy to the 2004 APEC forum, “Progress Achieved on U.S. Priorities at APEC, Ambassador Says,” Remarks to the Asia Society,” States News Service, December 1,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¹²³ George W. Bush, Remarks at CEO Summit Closing Session, November 20, 2004. http://usinfo.state.gov/eap/east_asia_pacific/apec.html.

¹²⁴ “Asia-Pacific Leaders Head to Chile for Summit Dominated by Terror,” Agence France Presse, November 19, 2004,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해상 및 항만보안

호주, 1,000노트 마일 구역을 설정

2004년 12월 15일 존 하워드 (John Howard) 호주수상이 호주의 해안선에서 1,000노트 마일[1,850 킬로미터]에 이르는 호주해상식별구역 (Australian Maritime Identification Zone [AMIZ]) 설정을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보안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호주해상식별구역 안은 2005년 3월에 시행될 것이며, 이 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들은 신분증 및 선원과 화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호주 항구에 입항하려는 선박들은 항로, 속도, 방문항구, 입항목적 등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¹²⁵ 하워드 수상은 라디오 발언에서 “그건 단지 누가 이 나라에 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용무가 무엇인지 이 중으로 확인하는 방법일 뿐이다.”고 설명하였다.¹²⁶ AMIZ은 티모르 해에 위치한 해상석유가스시설을 보호하고 해상재산 및 해안재산에 대한 테러위험을 신속히 감지해내기 위해 시행되었다. 호주방위군과 호주세관의 자원이 통합되어 새로이 구성될 공동해상방위사령부 (Joint Offshore Protection Command) 가 이 구역을 관장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의 계획에 경악을 표시했다. 인도네시아 의회 내 방위외무위원회 위원들은 AMIZ이 인도네시아 영해의 2/3를 포함하게 되므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호주해상식별구역을 거부하도록 권고했다. 테오 삼부아가 (Theo Sambuaga) 방위외무위원회 의장은 “호주가 일방적으로 그 구역을 선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행위는 분명히 도발이고 우리의 영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¹²⁷ 라고 말했다. 하싼 위라유다 (Hassan Wirayuda)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호주의 계획을 비난하며 인도네시아의 관할권에 대한 공격행위로 해석하였고, 마티 나탈레가와 (Marty Natalegawa) 외무부 대변인은 호주해상식별구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답이 “분명하고 철저하고 절대적이며 명확한 거부”라고 단언하였다.¹²⁸ 주워노 수다소노 (Juwono Sudarsono) 국방부장은 만약 호주 선박이 AMIZ 조치에 따라 인도네시아 영해에 들어오려 한다면 인도네시아가 해군병력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¹²⁹

2004년 12월 17일에 로버트 힐 (Robert Hill) 호주 국방부장관이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회담을 위해 파견되었으나 그 계획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 계획이 “지도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그의 발언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언론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말레이시아의 뉴 선데이 타임즈 (New Sunday Times)는 “호주가 미국과 긴밀히 동조함으로써 큰 위험에 노출되든 안 되든 호주는 자국의 해상 재산 내에서 만큼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모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는 분명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만약 호주의 국가적 관심이 그 이상 나아갈 때 호주는 이 지역에서 친구

¹²⁵ John Howard, “Strengthening Offshore Maritime Security,” PM Office Media Release, December 15, 2004, <http://www.pm.gov.au/news/media_Releases/media_Release1173.html>.

¹²⁶ “PM Announces Port Security Plan,” The World Today, ABC Radio, December 15, 2004, transcript available at <<http://www.abc.net.au/worldtoday/content/2004/s1265678.htm>>.

¹²⁷ “Indonesia Rejects Australian Maritime Zone,” Laksamana.net, December 18, 2004, <http://www.laksamana.net/vnews.cfm?ncat=48&news_id=7746>.

¹²⁸ “Indonesia Unhappy with Australia’s Security Zone Proposal,” The World Today, ABC Radio, December 18, 2004, transcript available at <<http://www.abc.net.au/am/content/2004/s1268287.htm>>.

¹²⁹ “Indonesia Rejects Australian Maritime Zone,” Laksamana.net, December 18, 2004, <http://www.laksamana.net/vnews.cfm?ncat=48&news_id=7746>.

보다 적을 더 많이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¹³⁰

2004년 12월 18일에 이루어진 알렉산더 다운너 (Alexander Downer) 호주 외무장관의 뉴질랜드 방문은 이웃국 뉴질랜드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해상식별구역이 뉴질랜드의 남쪽 섬을 가로지르게 되는데도 이 구역의 설정을 받아들였다. 필 고프 (Phil Goff)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우리 모두가 인신 밀매범과 마약 밀매범과 테러조직으로부터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 항공교통에 있어 비슷한 요구사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뉴질랜드도 자체적으로 선박들이 뉴질랜드 항구에 입항하기 48시간 전에 이와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1노트로 운행하는 평균수준의 컨테이너 선박에 있어 이것은 사실상 1,008 노트 마일에 이르는 해상정보구역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호주의 야당 의원들은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미국 해안경비대 프로그램과 비슷한 해상보안관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로버트 맥클리랜드 (Robert McClelland) 야당 국방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기초적인 물리적 검사나 선장, 선원들과의 대면 면담도 이루어지기 전에 선박들이 위험물질을 신고서 우리의 항구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¹³¹

[편집자 주: 인도네시아의 일부 비평가들은 호주 정부의 계획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확대로 간주하고 있으며 하워드 수상이 태평양 지역에서 부시 대통령의 대리보안관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다.¹³² 호주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11개 창설 가입국들 중 하나로 2003년 2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 9월에 코랄 해에서 있는 최초의 군사저지훈련 - “태평양보호자”(Pacific Protector) - 을 주도하였고 2004년 10월 일본 사가미만에서 있는 “팀 사무라이 (Team Samurai)” 훈련에 참여하였다.]

지역 요약

중국 당국, 하남 성에서 봉인되지 않은 방사능원 발견

중국 당국은 하남 성의 농업기술진흥연구소에서 폐기된 채 발견된 라듐-베릴륨 중성자원을 하남 성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로 안전하게 옮겼다. 땅콩 크기의 방사능원은 1983년 이후 폐기되었으며 2미터 높이의 철제 항아리에 담겨 있었고 육종용 [십중팔구 농업용 씨앗 단종용]으로 사용되었다.¹³³ 미국 국토보안부의 핵 평가 프로그램 (Nuclear Assessment Program) 의 보고에 따르면 발견된 방사능원이 라듐-226의 10-1,000큐리 사이로 추측되어 “상당한 양의 방사능원” 이다.¹³⁴ 2004년 5월에 중국

¹³⁰ “Australia Announces a New Nautical Security Zone,” *Regional Press Review*, Radio Singapore International, December 24, 2004, <<http://rsi.com.sg/english/regionalpressreview/view/20041224125352/1/.html>>.

¹³¹ “Government to Spend \$10m on Maritime Safety,” *The Age*, December 15, 2004, <<http://www.theage.com.au>>.

¹³² “Malaysian Editorial Terms Australia’s Maritime Surveillance Plan ‘Insincere,’” *Berita Harian* (Kuala Lumpur), December 18, 2004, in FBIS SEP20041218000040.

¹³³ Cao Desheng, “Radiation Source Found and Sealed,” *China Daily*, November 26, 2004, <http://www.chinadaily.com.cn/english/doc/2004-11/26/content_395229.htm>.

¹³⁴ “Open Source Reporting: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uclear

환경보호청, 공공 보안부 및 보건부가 하남 성에서 발견된 물질과 같은 폐기 방사능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환경보호청은 현재 안전한 처리를 요하는 폐기 방사능원 13,800개가 중국 전역에 걸쳐 흩어져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¹³⁵

편집자 주: 해당 폐기 방사능원은 “2 단계”였다.¹³⁶ 국제원자력기구의 체도와 동일한 분류체계를 적용하면 발견된 라듐-베릴륨 원은 10큐리 이상이였다. 범주 2에 속하는 원은 사람이 근접해 있을 때 단기간에 방사능 상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필리핀 분리주의 단체에 무기를 공급한 혐의가 있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 11월에 동남아시아의 보안당국이 북한인 무기상이 필리핀에 기반을 둔 모로 이슬람해방전선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에 수류탄, M16 소총 1만 정 이상, 돌격소총 200정과 관련 부품을 제공하였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압수하였다. 거래 총액이 220만 달러였으며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류에 따르면 북한인 무기상이 수중 침투선을 판매하려 했다. 모로 이슬람해방전선은 알 카에다 (al-Qaeda) 와 연계되어 있으며, 필리핀에서 가장 큰 이슬람분리주의단체로 “민다나오 섬 (Mindanao Island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 팔라완 (Palawan), 바실란 (Basilan), 술루 아רכipelago (Sulu Archipelago) 및 부속 섬들로 이루어진 이슬람 독립국가를 창설하고자 한다.¹³⁷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모로 이슬람해방전선이 말레이시아 중개자를 통해 림규도라는 이름의 북한인 무기상에게 보증금 100만 달러를 두장의 수표로 지불했다. 동남아시아 보안 당국은 무기가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MILF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배송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³⁸ 에이드 카발루 (Eid Kabalu) 모로 이슬람해방전선의 대변인은 기사가 “군 관리들의 근거 없는 옛날 얘기며 선전 거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필리핀 군 대변인은 기사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지 못했다.¹³⁹

싱가포르 기업, 비허가 재수출품에 대한 벌금 부과 받아들여

2004년 12월 23일에 싱가포르 램 리서치주식회사 (Lam Research Singapore Ptd., Ltd.) 는 수출통제 품목을 고의로 재수출하여 미국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민사벌금 4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동의하였다. 미국 상무부 산업 보안국에 따르면 램 리서치 주식회사는 2000년 11월과 12월 4차례에 걸쳐 10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압력 변화기 총 9대를 수출허가 없이 말레이시아로 보냈다. 압력변환기는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으로 인해 수출관리

Assessment Program, November 2004.

¹³⁵ Cao Desheng, “Radiation Source Found and Sealed,” *China Daily*, November 26, 2004, <http://www.chinadaily.com.cn/english/doc/2004-11/26/content_395229.htm>.

¹³⁶ Cao Desheng, “Radiation Source Found and Sealed,” *China Daily*, November 26, 2004, <http://www.chinadaily.com.cn/english/doc/2004-11/26/content_395229.htm>.

¹³⁷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for Counter-Terrorism website, <<http://www.ict.org.il/organizations/orgdet.cfm?orgid=92>>.

¹³⁸ Yoshinari Kurose, “DPRK Sold Weapons to Philippine Extremist Group MILF,” *Yomiuri Shimbun*, January 3, 2005 in FBIS JPP20050103000007.

¹³⁹ “MILF Spokesman Denies Arms Deal with North Korea,” *Manila Business World*, January 4, 2005, in FBIS SEP20050104000048.

규정에 의해 통제되는 품목이다.¹⁴⁰

국제 지원

미국 EXBS 프로그램, 태국과 싱가포르 연수 후원

2004년 11월 15일-19일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보안청 (NNSA) 이 방콕에서 개최된 호주 외교통상부, 국방부 및 보안확산 금지청 주관의 반확산 및 수출통제 대외프로그램 (Counterproliferation and Export Control Outreach) 에 참가하였다. NNSA은 태국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추가규약 (Additional Protocol) 에 기재된 물품을 중심으로 물품식별연수 (Commodity Identification Training [CIT])를 해주었다. CIT는 국가핵보안청이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장비와 기술의 밀매를 줄이기 위해 국경수비대와 세관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며, 국무부 수출통제협력청의 수출통제 및 관련 국경보안지원 (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 Assistance [EXBS]) 프로그램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¹⁴¹

[편집자 주: 수출통제 및 관련 EXBS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수출통제체제를 개선하도록 돕는데 있어 미국 정부의 최우선 전략”이다. 미 국무부 확산 금지국 수출통제협력청이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 웹 사이트를 보면 EXBS 프로그램이 “국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그리고 법률, 허가 및 단속을 위한 폭 넓은 연수와 도구를 제공하는 민간부문에서 전문가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고 나와 있다.]¹⁴²

방콕에서 개최된 이 연수회에서 여러 기관 출신의 태국 관리 5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특히 원자력청은 대부분의 관리들을 참석 시켰고 그 외에도 외무부, 과학 기술부, 국방부 및 보건부에서 참석하였다. 이 연수회는 태국정부가 IAEA의 Additional Protocol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관리들이 수출 전에 민감한 품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¹⁴³ [편집자 주: 태국정부는 현재 추가규약협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최종협의 중에 있다.]¹⁴⁴

국가 핵 보안청은 2005년 1월 마지막 주에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물품식별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

¹⁴⁰ “Lam Research Singapore Settles Charges of Unlicensed Reexport,”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Press Release, January 3, 2005 at <<http://www.bis.doc.gov/news/2005/LamResearch.htm>>; “Lam Research Singapore Pte., Ltd.,” BIS Electronic FOIA Reading Room Document, Case E859, December 23, 2004, <<http://efoia.bis.doc.gov/ExportControlViolations/E859.pdf>>.

¹⁴¹ “NNSA Expands Efforts to Combat Illicit Smuggling of WMD-Related Equipment and Technologies,” Press Release, October 14, 2004,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website, <<http://www.nnsa.doe.gov>>; “NNSA Expands Training Efforts to Combat WMD Smuggling,”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November 2004, p. 20,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10.pdf>.

¹⁴² “The EXBS Program: 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 Assistance,” U.S. Department of State website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9293.pdf>>.

¹⁴³ Interview with NNSA official by e-mail, January 2005.

¹⁴⁴ The Thai government spoke of their plans to sign the IAEA’s Additional Protocol at the 12th Annual Asia Export Control Seminar, held in Tokyo, October 2004; see “Fifteen Countries and Regions Attend the 12th Annual Asia Export Controls Seminar,”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November 2004, p. 20,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10.pdf>.

의는 일본 경제통상산업성 (METI) 및 호주 외교통상부와의 협력으로 개최되었으며, 싱가포르 세관, 국방과학 기술부 및 이민검문소 직원 등 “최전선” 수출통제관리 100여명이 참석하였다.¹⁴⁵

태국과 싱가포르 연수회는 CIT 프로그램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현지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다. NNSA 관리에 의하면 방콕 연수회는 물품과 수출통제에 생소한 관리들을 교육시키는데 집중했던 반면, 싱가포르 연수회는 경험 있는 수출통제 관리들이 수출통제품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었다.¹⁴⁶

중국 수출통제 관리들, 미국 후원의 친선프로그램 수료

2004년 10월에 중국 수출통제관리 4명이 2달간의 집중 친선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하였다. 2004년 12월에 종료된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부 국가핵보안청 수출통제정책 협력실에서 후원하였고 몬트레이 국제학 대학원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내 비확산연구소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에서 열렸다. 친선프로그램의 자금은 국무부 수출통제협력청의 수출통제 및 관련 국경보안지원 프로그램에서 조달되었다. [EXBS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 기사의 편집자 주를 참조] 이 프로그램은 중국의 수출통제체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무기통제 및 군비축소협회 (Chin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와 협력하여 비확산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

중국 수출통제 친선프로그램 (Chinese Export Control Fellowship Program) 을 통해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함께 모여 비확산과 수출통제에 관한 집중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중국의 수출통제 관리들과 정책 입안자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구성된 최초의 미국정부 후원 프로그램이었다. 이 친선프로그램에는 중국 국세청뿐만 아니라 상무부 및 국방부 관리들이 포함되었다. 참석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출통제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특별과정에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에게는 수출통제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참석자들은 미국 관리들 및 전문가들과 만나 수출통제와 비확산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 및 에너지부 관리들과 만났다. 또한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국제전략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헨리 엘 스티imson 연구소(Henry L. Stimson Center) 및 랜드주식회사 (RAND Corporaion) 의 비정부 전문가들과도 만날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국 관리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수출통제와 비확산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가 크게 증진되었다고 말했다. 중국관세청 관리인 우건핑 (Wu Genping) 은 이 친선프로그램이 수출통제문제를 보다 상세히 연구 -이 친선프로그램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주 치양귀 (Zhu Qiangguo) 국방부 관리는 이 친선프로그램을 통해 수출통제가 어떻게 “현 보안상황에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미래의 보안상황과 국가적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4명의 관리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리들을 추가로 보내려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다음 프로그램은 2005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다.

¹⁴⁵ Interview with NNSA official by e-mail, January 2005.

¹⁴⁶ Interview with NNSA official by e-mail, January 2005.

국제 수출통제 체제

2004년 국제 공급국 체제 (International Supplier Regimes) 소식

이 기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핵공급국 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및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에 관한 바세나르 협약 (Wassenaar Arrangement [WA])의 2004년도 활동을 요약한 것이다.

호주그룹 (AG)

2004년 6월 7일-10일 파리에서 열린 호주그룹 (AG) 총회에서 5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및 슬로베니아가 새로이 가입하면서 전체 가입국 수가 38개국이었다. 새로운 가입국들 중에 3개국은 옛 소비에트 연방 소속으로 현재까지 호주그룹에 가입한 유일한 옛 소련국가들이다. 호주그룹은 비공식 다국적 조직으로서 화학무기 또는 생물학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관한 각국의 수출통제법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호주그룹 총회에서 참가국들은 식물병원균 5종 (박테리아 3종, 바이러스 1종, 비로이드 1종)을 식물병원균 수출통제목록에 추가하였다. 새 명단에서 볼 수 있다.¹⁴⁷ 또한 생물학 약품을 공기 중에 살포할 수 있는 에어졸 형태의 공중 분무 및 안개발생시스템 등을 수출통제목록에 추가할 것이 제안되었고, 중개상과 위장회사의 확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밀매자들에 대한 통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또한 기타 이해관계국들 뿐만 아니라 호주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공급국과 환적 거점국들이 자국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수출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에 합의했다. 다음 총회는 2005년 호주에서 열린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2004년 10월 6일-8일 MTCR - 대량살상무기 (WMD) 를 장착할 수 있는 무인장착시스템의 비확산을 목적으로 한 국가들의 자발적인 비공식 연합- 34개 가입국 대표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19차 연례 총회에서 만났다. 참가국들은 동북아시아, 중동 및 남아시아에서의 미사일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결의를 다졌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해당 장비에 대한 교묘한 구매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무형기술의 이전, 운반, 환적 및 중개에 대한 통제를 검토하고, 중개상과 위장회사의 활동을 위축시킬 필요성을 공인하였다. MTCR 참가국들은 모든 나라가 WMD,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출통제 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540호 (UNSCR 1540) 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비가입국들이 MTCR의 지침과 규제를 따르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불가리아가 새로운 가입국이 되었다.

[MTCR의 최근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NIS 수출통제논평 (NIS Export Control Observer) 당월 호에 실린 “알 까를로스 세르살레 디 체리자노 (R.Carlos Sersale di Cerisano) 와의 대담”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¹⁴⁷ “List of Plant Pathogens for Export Control,” Australia Group website, <http://www.australiagroup.net/en/control_list/plants.htm>.

시오.]

핵공급국그룹 (NSG)

민감한 핵 품목과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핵공급국그룹 (NSG) 의 14차 총회가 2004년 5월 27일-28일 스웨덴 괴테보르그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가입국들은 중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및 몰타를 새 가입국으로 승인하였다. 이들 4개국의 가입국 지위는 2004년 6월 10일에 이루어진 각서교환을 통해 발효되었다.

새로 가입한 4개국 정부들이 국내 수출통제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총회에서는 하기의 대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핵무기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사용될 목적이거나 사용될 수 있는, 수출통제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핵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할 법적 기반을 수립하는 핵공급국 지침상의 “포괄 조항” 장치
- 연간 정보교환 강화조치
- 핵공급국 비가입국들과의 세미나와 기타 연합 활동을 통한 친선강화조치
-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에게 브리핑을 제공하는 등 NSG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관계 강화조치

이번 총회에서 참가국들은 WMD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리비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압둘 콰디어 칸 (A.Q.Khan) 이 이끄는 국제 확산 밀매조직이 적발된 데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참가국들은 또한 이란이 NPT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의 결의안 (IAEA Board of Governors Resolutions) 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참가국들은 북한이 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포함한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자국의 국제 비확산 의무를 다시금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및 미국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의 진행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입국 각국의 수출품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경계하여 줄 것이 요청되었다. 또한 가입국 정부들이 수출통제체제를 한층 강화하도록 기타 사안들을 폭 넓게 검토하였다. 검토된 사안들 중에는 핵공급국그룹의 수출통제목록에 기재된 핵 품목 및 이중용도 품목의 공급조건과 핵확산금지조약이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IAEA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핵 품목 공급의 중단이 포함되었다.

바세나르 협약 (WA)

2004년 10월 19일에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협약 (Wassenaar Arrangement [WA]) 과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들의 일본 대표부가, “바세나르 협약: 책임성, 투명성 및 보안”이라는 주제로 하루 일정의 대외 세미나를 주관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WA 사상 최초의 주요 대외 행사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35개국 이상에서 온 130여 명의 유력한 수출통제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다수의 바세나르 협약 비가입국들뿐만 아니라 50개 이상의 비정부 기구, 싱크 탱크, 대학, 산업계 및 언론의 대표들이었으며,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바세나르 협약이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 기술의 책임 있는 이전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였음을

인식시키지 위한 것이었다. 세미나의 발표내용은 바세나르 협약의 역사-활동 방법, 테러리즘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 확립 등 바세나르 협약의 2003년도 역할 평가, 결론, 현재 활동,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영역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타 의제로는 수출통제목록과 그 재검 방법, 무기 밀매, 그리고 소형 및 경무기와 휴대용 항공방위시스템 (MANPADS) 에 대한 바세나르 협약의 역할이 있었다. 주요 싱크 탱크와 비정부 기구 측 참가자들 또한 무기수출통제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바세나르 협약과 시민사회 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04 년 12월 8일-9일에 바세나르 협약의 10차 총회가 비엔나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4년의 성과를 검토하고, 수출통제조치들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바세나르 협약(WA) 가입국들은 테러집단과 테러조직이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 기술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국의 의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가입국들은 휴대용 항공방위시스템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는 2003년도 결정에 따라 각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고, 다른 국가들이 위험한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슷한 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참가국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UNSCR 1540) 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각국은 이 결의안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출 및 환적 통제 안을 설정, 개발, 유지해야 하며, 이것이 바세나르 협약의 일차적 목적이라는 점이 강조 되었다는데 주목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술의 진보, 시장의 이용가능성, 국제보안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수출통제목록을 다소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개정안은 곧 발표될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테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졌고, 참가국들은 기존의 규제 원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수출업자들과 인허가 당국에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슬로베니아가 새 가입국으로 받아들여졌고, 참가국들은 바세나르 협약이 전세계적 비차별에 기초하고 있으며 합의된 기준을 준수하는 가입 지망국에게 개방되어 있고, 계류중인 가입 신청은 사안별로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속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바세나르 협약 비가입국, 다른 수출통제체제 비가입국, 그리고 국제 및 지역 기구의 비가입국들에 대한 대외 프로그램 확대할 의향을 거듭 밝혔다. 다음 정기총회는 2005년 12월 비엔나에서 개최될 것이다.

국제 소식

유엔 결의 1540호에 대한 보고 마감일 지나,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가 전체 유엔 가입국들을 대상으로 테러범들이 대량살상무기 (WMD) 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법을 도입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결의안1540호 (UNSCR 1540) 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가입국 191개국 중에서 약 절반은 결의안 시행을 위한 조치를 기록한 보고서를 소위 1540 위원회 (1540 Committee) 에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¹⁴⁸

2004년 12월 9일 루마니아 대사이자 1540 위원회 의장인 미네아 모톡 (Mihnea Motoc) 은 UNSC에서

¹⁴⁸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on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dopted April 28, 2004, <http://www.un.org/Docs/sc/unscl_resolutions04.html>.

최장 2년의 기간이 설정된 1540 위원회의 활동진척사항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2004년 12월 5일 현재 86개국과 1개의 기구만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¹⁴⁹ 이 수치는 전체 유엔 가입국의 50% 밖에 안 되지만, 결의안에서 정해진 보고서 마감일인 2004년 10월 28일 당시 54개국만이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에 비하면 제출된 보고서 총수는 증가한 것이다.¹⁵⁰

이러한 낮은 수치에 대하여 앤드류 케이 시멜 (Andrew K. Semmel) 미국 핵확산금지 담당 부차관보는, 각국이 보고서 제출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국가 보고서들은 “우리가 당면한 도전의 범위와 그에 대한 최상의 대처방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언급했다. 시멜 부차관보는 “우리들 중 아무도 가장 약한 연대보다 더 강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1540 위원회에는 보고서를 강제할 권한이 없지만 미국은 “각국이 결의안의 의무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거나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법률적, 규제적 기반을 수립할 책임을 무시하고 있음이 명백해진다면 강제이행을 재검토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¹⁵¹

모택 대사는 UNSC에서의 브리핑에서 1540 Committee에 관한 얼마간의 진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1540 위원회는 브라질, 독일, 러시아 및 미국으로부터 보고서의 검토를 도울 4명의 전문가를 선발했다. 라우로 바자 필리핀 대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개발도상국이 가장 많으므로 이들 지역들이 위원회의 업무에 도움이 될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전문가들이 이들 지역에서 선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니르 아크람 (Munir Akram) 파키스탄 대사는 개발도상국에서 전문가를 선발하는데 역점을 둔다면 “대다수의 개발도상 가입국들이 배제된 채 결의안 작성의 전 과정이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인상을 떨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¹⁵²

중국은 결의안에 대해서 대체로 침묵하였으나 2004년 12월에 국방백서를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호(UNSCR 1540)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피력하였고, 중국은 2004년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보고서는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개되지 않았다.¹⁵³

IAEA, 이집트의 비신고 핵 활동 조사 중

2004년 11월 5일 AP 통신은 익명의 외교관들을 인용하여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사찰관들이 한 이집트 핵 시설 인근에서 플루토늄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AP 보도에서는 그것이 언제 발견되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¹⁵⁴ 2005년 1월에 게재된 언론 보도에서 IAEA와 가까운 한 외교

¹⁴⁹ “Security Council Briefed by Chair of Monitoring Body Created to Combat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ress Release, December 9, 2004, <<http://www.un.org/News/Press/docs/2004/sc8265.doc.htm>>.

¹⁵⁰ Andrew K. Semmel, “The U.S. Perspective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at the Asia-Pacific Nuclear Safeguards and Security Conference, November 8, 2004, <<http://www.state.gov/t/np/rls/rm/38256.htm>>.

¹⁵¹ Andrew K. Semmel, “The U.S. Perspective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at the Asia-Pacific Nuclear Safeguards and Security Conference, November 8, 2004, <<http://www.state.gov/t/np/rls/rm/38256.htm>>.

¹⁵² “Security Council Briefed by Chair of Monitoring Body Created to Combat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ress Release, December 9, 2004, <<http://www.un.org/News/Press/docs/2004/sc8265.doc.htm>>.

¹⁵³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4,”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ember 27, 2004.

¹⁵⁴ “Plutonium Traces Found at Egypt Nuke Facility,” Associated Press, November 5, 2004; George Jahn, “U.N.: Traces of Plutonium Found in Egypt,” Associated Press, November 5, 2004.

관은 과거 신고되지 않은 우라늄 실험 [아래 기사내용 참조]에 관여했던 이집트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논문이 단초가 되어 IAEA가 이집트의 핵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¹⁵⁵ 플루토늄 흔적이 발견되자 국제원자력기구는 2004년 여름 이후로 이집트를 적극 조사하고 있다. 그 외교관은 현재 국제원자력기구가 2004년 12월에 이집트에서 수거된 환경 샘플을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스트 결과는 2005년 1월 하순에 나올 예정이다.¹⁵⁶ 발견된 플루토늄 입자가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플루토늄 생산을 목적으로 한 비밀 활동의 증거가 되는지, 혹은 연구소 원자로의 파손된 연료원소에서 나왔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집트에서 수거한 환경 샘플은 현재 유럽의 몇몇 연구실험실에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에 정통한 한 비엔나 주재 외교관은 익명을 전제로, 환경 샘플을 통해서는 1980년대 이후 플루토늄 입자가 방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 외교관은 또한 IAEA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집트에 대해 성급한 가정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¹⁵⁷ IAEA와 가까운 또 다른 비엔나 주재 소식통에 따르면 사찰관들이 이집트에서 발견한 플루토늄 입자는 소위 “핫셀 활동 (Hot cell Activity)” – 이집트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비밀 작업을 수행했음을 나타내는 용어 – 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고 말했다.¹⁵⁸ [편집자주: 핫셀은 방사성 물질에서 플루토늄 혹은 기타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데 쓰이는 차폐 시설이다.]

2004년 11월 7일 알리 이슬람 (Ali Islam) 이집트 원자력청 청장은 이집트에 비밀 핵 시설이 있다는 언론의 추측을 부인하였고, 이집트는 핵확산금지조약과 IAEA와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¹⁵⁹ 같은 날 마구엣 앓델 팻타 (Magued Abdal Fattah) 대통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집트 핵 프로그램은 투명하며 국제 사찰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AEA의 전문가들이 바로 최근인 2004년 10월에 이집트의 핵 부지를 사찰하였다고 덧붙였다.¹⁶⁰ 2004년 11월 8일에는 이집트 외무부와 전기에너지부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이집트가 비밀 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¹⁶¹

2005년 1월 4일 IAEA의 사찰에 대한 보다 진전된 AP 통신 보도에서 익명의 외교관들은 IAEA의 전문가들이 이집트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을 수 있는 비밀 핵 실험의 증거를 더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그 외교관들은 실험의 대부분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행해졌지만 바로 2004년에 이루어진 일부 실험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집트의 과학자들이 아마도 정부의 승인 없이 금속 우라늄과 우라늄 테트라플루오라이드를 포함한 많은 양의 우라늄 성분을 생산하려고 했으며, NPT

¹⁵⁵ Louis Charbonneau, “UN Inspectors Visit Egypt Plutonium Lab Diplomats,” Reuters, January 21, 2005. Michael Adler, “IAEA Probing Egypt for Atomic Experiments,” Agence France Presse, January 6, 2005.

¹⁵⁶ Michael Adler, “IAEA Probing Egypt for Atomic Experiments,” Agence France Presse, January 6, 2005.

¹⁵⁷ Plutonium Traces Found at Egypt Nuke Facility,” Associated Press, November 5, 2004; George Jahn, “U.N.: Traces of Plutonium Found in Egypt,” Associated Press, November 5, 2004.

¹⁵⁸ Paul Kerr, “IAEA Investigating Egypt and Taiwan,” *Arms Control Today*, January/February 2005, <http://www.armscontrol.org/act/2005_01-02/Egypt_Taiwan.asp>.

¹⁵⁹ “Egypt’s Atomic Energy Chief Denies Carrying out Banned Nuclear Activity,” MENA News Agency (Cairo), November 7, 2004, in FBIS GMP20041107000178.

¹⁶⁰ “Egypt Rejects Allegations of Secret Nuclear Programme,” Agence France Presse, November 7, 2004;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Egypt Rejects Speculations over Nukes,” *China Daily*, November 8, 2004, <http://www.chinadaily.com.cn/english/doc/2004-11/08/content_389467.htm>.

¹⁶¹ “Egypt Rejects Speculations over Nukes,” *China Daily*, November 8, 2004, <http://www.chinadaily.com.cn/english/doc/2004-11/08/content_389467.htm>.

에 따라 IAEA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¹⁶² [편집자 주: 금속 우라늄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에 쓰일 수 있다. 우라늄 테트라플루오라이드 (UF4) 는 우라늄 핵사플루오라이드 가스 (UF6) 의 전단계이며 우라늄 핵사플루오라이드 가스는 우라늄농축시설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여기서 무기급으로 농축될 수 있다.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모두 핵무기의 핵으로 사용된다.]¹⁶³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되면서, 예비 조사결과 이집트의 실험이 대부분 간헐적이고 총체적인 목적이 없으며 미미한 양의 핵 물질만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¹⁶⁴ 2005년 1월 4일 AP 통신에서 보도한 익명의 외교관들 중 한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이집트의 핵실험은 직접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¹⁶⁵ IAEA와 가까운 또 다른 외교관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핵 실험의 대부분이 이집트가IAEA의 포괄적 사찰협약에 가입한 1982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단언했다.¹⁶⁶

마크 귀즈데키 (Mark Gwozdecky) IAEA 대변인은 2005년 1월 초에 이러한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핵사찰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자제했다.¹⁶⁷ 맥디 래디 (Magdy Rady) 이집트 정부 대변인은 최근 뉴스를 의식하며, 이집트가 의학 및 과학 연구용 핵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핵 프로그램은 IAEA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다는 예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래디 대변인은 “우리의 핵 프로그램은 전혀 비밀스럽지 않으며 IAEA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¹⁶⁸

2005년 1월 21일 익명의 서방 외교관들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문가들이 카이로 인근에 위치한 한 실험실 시설을 사찰하고 있으며, 이 시설이 플루토늄 재처리용으로 198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은 과거 그 시설에서 신고되지 않은 플루토늄 핵 실험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계획되었다. IAEA의 대변인은 이 뉴스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¹⁶⁹ 이집트에서 진행되는 IAEA의 사찰에 정통한 또 다른 외교관은 AP 통신을 통해 “일단 과거의 활동을 조사해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이다.”고 말했다.¹⁷⁰ 또한 여러 명의 서방 외교관들은 익명을 전제로 이집트의 과거 핵실험 가능성과 이란과 리비아, 그리고 한국의 비밀 핵 프로그램 간에 성급한 비교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05년 1월 초 아흐메드 나지프 (Ahmed Nazif) 이집트 수상은 이집트에 비밀 핵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언론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이집트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이며 주로 “전기발전과 해수 담수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¹⁷¹ 덧붙여 슬레이만 아와드 (Suleiman Awad) 대통령 대변인은 이집트 정부가

¹⁶² “Egypt Said to Run Nuclear Tests With Possible Link to Weapons,” Associated Press, January 4, 2005. Louis Charbonneau, “UN Inspectors Visit Egypt Plutonium Lab Diplomats,” Reuters, January 21, 2005.

¹⁶³ “Egypt Said to Run Nuclear Tests With Possible Link to Weapons,” Associated Press, January 4, 2005.

¹⁶⁴ “Egypt Said to Run Nuclear Tests With Possible Link to Weapons,” Associated Press, January 4, 2005. Michael Adler, “IAEA Probing Egypt for Atomic Experiments,” Agence France Presse, January 6, 2005.

¹⁶⁵ “Egypt Said to Run Nuclear Tests With Possible Link to Weapons,” Associated Press, January 4, 2005.

¹⁶⁶ Michael Adler, “IAEA Probing Egypt for Atomic Experiments,” Agence France Presse, January 6, 2005.

¹⁶⁷ “Egypt Said to Run Nuclear Tests With Possible Link to Weapons,” Associated Press, January 4, 2005.

¹⁶⁸ “Egypt Said to Run Nuclear Tests With Possible Link to Weapons,” Associated Press, January 4, 2005.

¹⁶⁹ Louis Charbonneau, “UN Inspectors Visit Egypt Plutonium Lab Diplomats,” Reuters, January 21, 2005.

¹⁷⁰ Antonio Castaneda, “Diplomat: IAEA Tours Egyptian Laboratory,” Associated Press, January 22, 2005.

¹⁷¹ Louis Charbonneau, “UN Inspectors Visit Egypt Plutonium Lab Diplomats,” Reuters, January 21, 2005.

에너지 프로그램의 투명성에 관해 IAEA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¹⁷²

이집트 정부는 2005년 1월 25일에 처음으로 비신고된 핵 활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이집트 관영 미들이스트 통신 (Middle East News Agency [MENA])은 한 익명의 이집트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여, 이집트가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안전조치협약 (Safeguards Agreement) 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차이로 인해서 착수하였거나 착수하도록 인가된 일부 실험과 연구 활동에 관해 IAEA 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¹⁷³ MENA 통신은 이집트와IAEA가 현재 “철저히 협력하며 투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¹⁷⁴ 2005년 1월 27일 알리 이슬람 (Ali Islam) 이집트 원자력청 청장이 미들이스트 통신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집트의 핵 프로그램이 “정상적”임을 확인하였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이집트 정부가 “연구 활동의 신고에 있어 교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이집트의 비밀 핵 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가 한층 더 명백해졌다.¹⁷⁵ 비엔나 주재 외교관들이 익명으로 로이터 통신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과 이란의 비밀 핵무기 활동이 드러났을 때처럼 이집트에서 수집된 정보에 대해 3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¹⁷⁶

편집자 주: 이집트는 1970년대 초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했다. 1960년대에 소련과 중국이 이집트에 대한 핵무기 제공을 거절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 이집트 정부는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의 건설 계획을 포기하였다. 이집트는 1981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1982년에 NPT에서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조치협약(IAEA Nuclear Safeguards Agreement)에 조인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조치협약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들이 가입국이 신고한 민간 핵 활동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입국을 감시할 수 있다. 이집트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안전조치협약의 추가규약(Additional Protocol)에 아직 조인하지 않았다. 추가규약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권을 상당 폭 확대하는 개정안이다.¹⁷⁷

현재 이집트는 주로 의학 및 과학연구를 위한 인샤스 핵 연구소의 소형 핵 원자로 2기로 구성된 매우 제한적인 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집트에는 원자력발전소, 재처리 시설 또는 농축시설이 없다. 이집트는 플루토늄분리 뿐만 아니라 의료용 동위원소의 분리에 쓰이는 소위 “핫셀”로 불리는 차폐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002년 이집트 정부는 자국 최초의 핵 원자로 건설을 검토하였고 알-다바의 해안도시 인근에 그 부지까지 선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관영 이집트 신문인 알-아람의 보도에 따르면 관광산업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판매할 것이라고 한다.¹⁷⁸

¹⁷² Antonio Castaneda, “Diplomat: IAEA Tours Egyptian Laboratory,” Associated Press, January 22, 2005.

¹⁷³ “Egypt Says Failed to Tell UN Watchdog of Research,” Reuters, January 25, 2005.

¹⁷⁴ “Egypt Says Failed to Tell UN Watchdog of Research,” Reuters, January 25, 2005.

¹⁷⁵ “Egypt Says IAEA Sees Its Nuke Research as ‘Sound,’” Reuters, January 28, 2005.

¹⁷⁶ “Egypt Says IAEA Sees Its Nuke Research as ‘Sound,’” Reuters, January 28, 2005.

¹⁷⁷ “Egypt Denies Reports of Secret Nuclear Programme,” Deutsche Presse Agentur, November 7, 2004;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Country Profile: Egypt: Nuclear Overview, Nuclear Threat Initiative website, <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Egypt/Nuclear/index.html>.

¹⁷⁸ Plutonium Traces Found at Egypt Nuke Facility,” Associated Press, November 5, 2004; George Jahn, “U.N.: Traces of Plutonium Found in Egypt,” Associated Press, November 5, 2004; Paul Kerr, “IAEA Investigating Egypt and Taiwan,” *Arms Control Today*, January/February 2005, <http://www.armscontrol.org/act/2005_01-02/Egypt_Taiwan.asp>; “Egypt Rejects Allegations of Secret Nuclear Programme,” Agence France Presse, November 7, 2004;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Egypt Said to Run Nuclear Tests With Possible Link to Weapons,” Associated Press, January 4, 2005; Country Profile: Egypt: Nuclear Overview, Nuclear Threat Initiative website, <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Egypt/Nuclear/index.html>.

워크숍 및 컨퍼런스

제 17 회 수출통제 세계화 연례회의 (17th Annual Conference on the Globalization of Export Controls)

2004년 11월 15일-17일 제 17차 수출통제세계화에 관한 연례회의가 런던에서 열렸다.¹⁷⁹ 이 회의는 기업 경영자들과 정부 관리들이 모여서 수출통제규칙의 최근 변경 안, 수출통제 현안 및 수출통제 분야의 새 소식을 논의하는 연간 포럼이다. 3일 일정의 이번 회의에 세계적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의 정부 관리들도 참석하였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영국 및 미국등 각국의 대표가 참석했다.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와 유엔도 대표를 참석시켰다. 이외에도 IBM Corporation, 파이낸셜 타임즈 (Financial Times), 마셜 에어로스페이스 (Marshall Aerospace),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미츠이물산 (Mitsui & Co), 퀄컴(Qualcomm), 레이씨온(Raytheon), 롤스로이스 (Rolls-Royce PLC), SAP 등 기업 경영자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미국과 유럽의 수출통제 변경 안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과 기업 강령까지 폭 넓은 쟁점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및 미국의 수출통제규칙 변경 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되었다. 매튜 보어만 (Matthew Borman) 미국 산업보안 담당 부차관보는 “지식(Knowledge)”, “레드 플래그 (Red Flags)” 및 “안전항구 (Safe Harbor)”에 대한 연방등기소의 최근 변경안과 아울러 수출허가신청 절차를 설명하였다. 영국 무역 산업부 수출통제기구 관리인 조 거스리 (Jo Guthrie) 와 독일 경제부 군수품관리청 청장인 군터 스프뢰겔 (Gunther Sprogel) 박사는 각각 영국과 독일의 수출통제규칙에 관한 최신 정보를 발표하였다.¹⁸⁰ 마지막으로 탈레스 인터내셔널 (Thales International) 의 의장인 도미니끄 라모뤼 (Dominique Lamoureux) 가 프랑스의 수출통제 관련 법안과 규칙에 대한 변경 안을 발표하였다. [편집자 주: 탈레스 인터내셔널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전자방위항공기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국의 수출통제규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접하면서 아울러 암호화 통제, 소프트웨어, 기술데이터 통제 등의 쟁점과 일반포괄수출허가 (Open General Export Licenses [OGELs]) 에 관한 패널 토론에도 참여하였다. [편집자 주: 미국의 특정포괄허가서 (US Special Comprehensive License) 와 비슷한 일반포괄수출허가는 영국 수출통제기구 (UK Export Control Organization) 에 등록된 기업들이 표준개별수출허가 (Standard Individual Export License) 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정부 및 비정부 기구 출신의 패널 참석자들은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컨테이너 안보구상 (CSI) 및 환적국 수출통제협약 (Transshipment Country Export Control Initiative [TCECI]) 의 진척에 관해 토론하였고 몇몇 새로운 구상을 논의하였다. 일례로 한 패널에서는 기업 강령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업 내부 통제 프로그램을 감사하고 확인하는 인증제도의 개발에 관해 토론하였다.¹⁸¹ 이

¹⁷⁹ IBC Global Conference Daily Schedule for 17th Annual Conference on the Globalization of Export Controls, London, United Kingdom, November 15-17, 2004.

¹⁸⁰ IBC Global Conference Pamphlet for the 17th Annual Conference on the Globalization of Export Controls, London, United Kingdom, November 15-17, 2004.

¹⁸¹ Toshio Watanabe, General Manager at Mitsui & Co. Ltd., “Corporate Compliance on Security Trade Controls,” Presentation at the 17th Annual Conference on the Globalization of Export Controls, London, United Kingdom, November 15-17, 2004. Toshio Watanabe, General Manager at Mitsui & Co. Ltd., “Outline of Certification for

제안에 따르면 선진 7개국들은 종합품질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와 같은 기업관리제도와 비슷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편집자 주: 종합품질관리는 상용화된 경영관리제도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특정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외부 감사들이 기업의 관리제도를 감사하고 최종 인증을 위해서 그 조사결과를 선진 7개국의 각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일단 인증이 시행되면 선진 7개국에 의해 인증된 기업들은 인증된 다른 기업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 토론자는 정부가 수출통제교육과 수출통제규칙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기업의 임원들을 인증하게 하자는 색다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¹⁸²

수출통제 세계화에 관한 연례회의는 최근 수년간 점차 세계적인 규모가 되었다. 과거에 회의 참석자들이 주로 서유럽과 북미의 정부 및 재계 출신들이었던 반면, 올해에는 동유럽과 아시아 출신의 참석자들이 증가하였다.¹⁸³ PSI, CSI, 인증절차 등 수출통제와 관련된 새로운 협약들이 개발되면서 이와 같은 회의가 정부 대 기업의 “outreach” 프로그램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과 2006년의 연례회의는 런던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특집 기사

알 까를로스 세르잘레 디 세리자노 (R. Carlos Sersale di Cerisano) 와의 대담

2004년 11월 3일 *NIS Export Control Observer*는 최근 1년 임기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의 의장직을 마친 알 까를로스 세르잘레 디 세리자노 (R. Carlos Sersale di Cerisano) 대사와의 대담을 가졌다. 비확산연구소 부소장인 레오나드 스펙터 (Leonard Spector) 와 *NIS Export Control Observer*의 편집자인 소니아 벤 워그람 (Sonia Ben Ouagrham), 그리고 비확산연구소의 명예교수인 로렌스 샤인만 (Lawrence Scheinman) 이 대담을 진행하였고, 편집은 비확산연구소의 스코빌 펠로 (CNS Scoville Fellow) 인 엘리자베스 이래커 (Elizabeth Eraker) 가 맡았다. 세리자노 대사는 MTCR의 최근 대외활동, 무형기술의 이전과 환적에 대한 해결 과제들, 합법적 이중용도 무역에 관한 사안들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호 (UNSCR 1540) 와 미사일확산을 금지하는 헤이그 행동규약 (Hague Code of Conduct) 이 가져올 전망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세리자노 대사는 현재 아르헨티나 외무부의 국제안보 핵항공국 국장으로서 아르헨티나와 국제협약 간의 관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금지, 무장해제, 원자력의 평화적 개발 및 우주항공 관련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아르헨티나 외무부의 인권사무총장과 유엔 산업부의 유엔 사무 담당 사무총장 특별대리와 아르헨티나 외무국 관리로 근무하였다.

Corporate Internal Compliance Programs,” Presentation at the 17th Annual Conference on the Globalization of Export Controls, London, United Kingdom, November 15-18, 2004.

¹⁸² Richard T. Cupitt, “Export Control Compliance: Emerging Standards,” Presentation at the 17th Annual Conference on the Globalization of Export Controls, London, United Kingdom, November 15-18, 2003.

¹⁸³ Toshio Watanabe, General Manager at Mitsui & Co. Ltd., “Corporate Compliance on Security Trade Controls,” Presentation at the 17th Annual Conference on the Globalization of Export Controls, London, United Kingdom, November 15-17, 2004; Nineta Barbulescu, Head of Romanian National Agency for Export Controls, “Government-Industry Relations In a Nut Shell,” Presentation at the 17th Annual Conference on the Globalization of Export Controls, London, United Kingdom, November 15-17, 2004.

MTCR의 대외활동: 리비아, 중국, 예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NIS Export Control Observer: 대사께서 재직할 당시 MTCR의 대외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세리자노 대사: 가장 중요한 대외활동은 리비아와 중국을 상대로 한 임무였습니다. 리비아에 대한 활동은 2003년 12월에 리비아가 공표한 선언[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선언]에 기초하였습니다. 그것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가 이룬 공로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리비아의 결정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04년 2월에 리비아 정부를 방문해서 리비아 정부가 MTCR의 지침과 기술부록 (Technical Annex) 을 기초로 한 수출통제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MTCR에는 사무국이 없음을 유념하십시오 MTCR의 활동은 의장의 역량과 이러한 활동을 특히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가입국들의 지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리비아의 경우 우리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한 국가가 MTCR의 가입국이 되기 위해 검토해야 할 3가지 측면, 즉 정보기관/정보교환, 세관정책과 단속활동, 그리고 기술부록의 이행을 연구했습니다. 2004년 5월 1일과 2일에 리비아 관리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MTCR의 의장, 일부 지원국의 대표들, 그리고 MTCR 내 3그룹 [정보공유, 세관, 기술사안]의 공동의장도 참석하였습니다. 일부 지원국들은 양국간 접촉을 기반으로 단속활동과 같은 특정 분야의 리비아 관리들을 계속 교육시켰습니다. 지난주에 리비아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규칙에 따라 리비아가 효과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수립해야 하므로, 지금 즉시 가입국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적 시각에서 리비아의 사례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하지만 리비아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리비아가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우리는 그 미사일과 무기류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세리자노 대사: 우리는 무기류만이 아니라 리비아가 보유한 무형기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리비아인의 다수가 미사일 제조 훈련을 받았고, 핵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 부문에 있어서 리비아에는 매우 박식한 인재들이 있었고 군사 목적용 미사일 프로그램-우주공간 탐사에 관계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리비아는 MTCR의 가입국이 되기 위해서 그 규칙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MTCR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리비아가 수출통제체제를 개발하여 가동시켜야 하고, 캐치올 규정 (Catch-All Provisions) 의 도입 등 자체 법률에 MTCR의 지침과 기술부록 (Guidelines and Technical Annex) 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비아는 주로 북한에서 수입하였습니다. 리비아가 수출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출통제체제는 수입과 수출 양쪽 모두의 감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대사께서는 여타 주요 대외활동이 중국에 대한 것이었다고 언급하셨지요?

세리자노 대사: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좀 다른 종류의 대외 임무였습니다. 우리는 2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에서는 리비아의 경우처럼 일반적 사안에 대한 논의하거나 그 밖에 우리의 일반적인 임무에 속하는 사안들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MTCR의 규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단속활동과 Technical Annex에 관한 두 차례의 특별 회의를 열었습니

다. 우리는 의장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술 전문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통제목록 등 중국의 법률에 명시된 이중용도 품목을 분석하고 그것을 MTCR의 Technical Annex과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중국은 1-2년 전에 수출통제규칙을 공표했습니다. 비확산연구소에서 그것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다소 차이점이 있었지만 대체로는 비슷했습니다. 대사께서도 같은 의견이셨나요?

세리자노 대사: 많은 차이점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결국 해결되었습니다. 2004년 2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만에 기술전문가그룹의 의장이 다른 일원의 지원을 받아서 그 차이점들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중국의 허가체계 (licensing system) 를 살펴봤는데 수출의 실제적 측면과 세관에서 물품이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텐진 항구를 방문해서 컨테이너를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짜임새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중국이 필수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까?

세리자노 대사: 네. 회의하는 동안에 우리는 외무부와 관세청, 그리고 다른 많은 관련 부처의 관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특히 건설적이었습니다. 이 후에 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수출통제체제를 확립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리비아와 중국을 상대로 한 대외임무가 아마도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만 아울러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한 대외임무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멘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일했습니다. 두 나라는 유럽연합 (EU) 에 가입하길 원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규칙을 지키고자 허가체계를 갖추고 싶어 합니다.

미사일통제체제 회원가입의 기준

NIS Export Control Observer: 중국이 MTCR의 정식 가입국이 되는데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중국이 정식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세리자노 대사: 회원가입은 만장일치로 결정되므로 한 나라라도 신청국이 회원이 될 준비가 안 되었다고 결정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한 접근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포함 시키느냐와 관계되는 문제이지, “수출통제”라는 단어 앞에 있는 “효과적인”이라는 단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암즈 컨트롤 투데이 (*Arms Control Today*) 10월 호에 실린 기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암즈 컨트롤 투데이(*Arms Control Today*) 2004년 10월 빅터 자보르스키 (Victor Zaborisky), “중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어울리는가?”] 기사의 저자는 중국이 정식 가입국이 될 경우 중국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중국을 제외시키기보다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북쪽과 남서쪽 지역 분쟁에 대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6자 회담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및 미국이 참여하는 회담] 에서 미국에 건설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따른 이익이 인정받지 못하는데 따른 이익보다 더 큼니다. 중국은 미사일 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북한과 다릅니다. 중국은 모든 기술 자문을 마친 후 9월 중순에 MTCR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지난1990년대 중반에 폴란드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제무역이라는 것이 일정 수준의 활동이 인가된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1994-1995년에 폴란드의 거래 방식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세리자노 대사: MTCR의 회원자격을 검토해 보면, 유럽 국가들 중에 대부분이 회원자격 기준과 관련된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나 EU에 소속된 국가들은 자국의 수출통제지침과 EU 전체가 도입한 지역적 수출통제지침을 양립시켜야 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이라는 환경에서 다루어져야 할 환적 문제도 있습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리비아가 MTCR가 가입국에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표준을 충족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리자노 대사: 리비아는 북한의 고객이었습니다. 리비아가 개발했던 것은 자국의 필요에 맞게끔 기술을 응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리비아는 기후여건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미사일 탄도를 개조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리비아는 세르비아에 액체연료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액체연료는 Technical Annex 2장에 기재된 품목들 중의 하나입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TCR의 가입국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 때문에 가입하길 원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리자노 대사: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들이 신청할지라도 다른 가입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국가들이 미사일기술 개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지침 (MTCR Guidelines) 을 지키지 않는다면 환적 거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는 가입국이 아니면서도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지침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프러스가 중요한 환적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이프러스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사이프러스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물품에까지도 적용되는 허가체계입니다. 환적과 밀매정보는 MTCR가 애초에 생각한 사안은 아니지만 오늘날 다룰 필요가 있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Arms Control Today*에 게재된 다른 기사에서, MTCR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미사일기술] 개발국들만 다루어야 하며, 환적 국가들은 다른 종류의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체계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론적 접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누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법률적 기반이 없는 체계 내에 하위 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출통제체제 전반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미사일기술통제체제만이 아니고 모든 수출통제체제에 해당됩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그렇다면 호주그룹(AG), MTCR, 핵공급국그룹 (NSG) 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까요?

세리자노 대사: 모든 체계에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호주그룹의 활동을 조약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의 경우에는 유사한 협약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지역 대외활동

NIS Export Control Observer: 대사께서는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를 상대로 대외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시지요?

[편집자 주: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이 2001년 1월 15일에 상하이에서 설립한 6개국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세리자노: 그건 지역포럼으로 MTCR의 또 다른 형태의 대외활동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SCO를 방문해서 정식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이 SCO에 가입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이 기구가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카자흐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의 가입국이며 동시에 MTCR에 가입하길 원합니다. 구소련에 미사일이 많이 있고, SCO의 가입국들도 아프가니스탄에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TCR과 SCO 간의 협력은 차기 의장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대사께서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전략핵미사일이 아닌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사일기술통제체계하에서 이러한 국가들이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적입니까?

세리자노 대사: 음, 그건 미사일기술통제체계가 추구하는 겁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러와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분명한 점은 테러와 전쟁을 하려면 이러한 국가들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TCR가 SCO와 같은 지역 기구들과 협력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라고 보십니까?

세리자노 대사: 그건 권한에 속한 사안인데, 새로운 추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전임자들도 지역 기구들과 어느 정도 협력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대외활동이란 아랍연맹과 대화관계를 수립하려 했던 우리의 최초의 시도와 같은 정말 새로운 임무입니다. 아랍연맹은 우리와 논의하길 매우 꺼렸습니다. MTCR가 유엔기구가 아니고 그래서 “국제적” 속성이 없으므로 가입하고 싶지 않다는 구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진전은 없었지만 적어도 회원자격에 대한 찬반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관계를 수립하였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리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NIS Export Control Observer: 통제의 범위를 미사일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UNSCR 1540를 어떻게 보십니까?

세리자노 대사: 훌륭한 조치입니다. 그 결의안은 유엔이 비확산 분야에서 채택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가 주도한 점이 중요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UN Charter) 7장에 의해 이 결의안을 강제했는데 이 결정도 중요합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계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결의안은 간접적으로 모든 수출통제체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의안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기술부록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10월 20일이었고 전체 유엔 가입국들 중에 57개국만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입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단지 보고서 작성을 돕는 일만이 아니고 수출통제 목록, 단속활동, 환적 그리고 기타 사안 등 수출통제체제의 모든 측면에서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의안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현재 루마니아가 의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 결의안 1540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면서 유엔의 역량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 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유엔은 이 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유엔에는 미사일 분야의 전문가와 이라크에서 “식량과 석유교환 (Oil for Food)”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대략 3억 달러나 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의안 1540호를 이행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가 각국이 개선된 수출통제를 이행하도록 돕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견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이집트와 기타 아랍연맹의 가입국들 같은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MTCR에 반대해왔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남반구 대 북반구 분쟁의 표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통제체제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결의안 1540호에 의하면 그들도 수출통제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사께서 아랍연맹을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다루어졌었나요?

세리자노: 네. 그것은 제 발표문의 13가지 요지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다른 수출통제체제에 결의안 1540호가 더해진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의안 1540호는 유엔헌장 7장의 결의안이고 이것은 모든 유엔 가입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결의안이 지닌 구속력은 원래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은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위원회 의장의 역량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지적대로 결의안 1540은 이제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무형 기술이전 및 환적 문제

NIS Export Control Observer: 최근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총회에서 가입국들이 무형 기술이전, 환적 그리고 밀매 문제의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이런 영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세리자노 대사: 무형 이전은 지난 9월에 처음으로 MTCR의 의제가 되었습니다. 환적 규제도 지난 총회에서 강화되었습니다. 무형이전의 경우는 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일인들이 지난 6월에 유익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재계와 학계의 대표들 뿐 만 아니라 정보기관과 수출통제 당국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에 대학의 자유 대 수출통제와 이민 문제가 토론에 포함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외국인들이 선진국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때 이민문제가 제기된다.] 이민 문제는 해결하기가 보다 어렵고 MTCR 가입국들 간에 공통된 지침이 마련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각국과 각국이 채택하는 규칙, 가령 비자규칙 같은 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령 선진국에 있는 외국인들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관계가 있고 많은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정책적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MTCR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할 것입니다만 가입국들 간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령 수출통제 안을 인터넷에 올리고 싶어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기업에 의한 환적과 밀매의 경우에도 분명히 기술적 문제가 수반됩니다. 환적과 밀매는 정보기관, 허가체계, 그리고 최종사용자 통제를 포함한 포괄 조항과 함께 다루어 질 수 있습니다.

통상금지의 경우는 간혹 국제상거래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합니다. 각국이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와 관련해서 통상금지를 검토해왔고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UN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의 개정안이 될 법적 기준을 개발해왔습니다. 이것도 UNSCR 1540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결의안이 승인되기 전에 착수된 일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배상책임과 보증을 들 수 있습니다. 통상금지 가 시행되면 누군가가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런 경우에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이 양자간 협약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참여를 억제하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출통제목록을 가지고서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불법이 아닌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허가절차, 단속인력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정보기관 등 수출통제체제의 다른 구성요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기관은 효과적인 수출통제를 위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가 이중용도 무역과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

MIS Export Control Observer: 대사께서는, 수출통제체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각국의 경제개발과 발전 능력에 다소간 장애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품이나 기술의 이전, 접근가능성 등의 문제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기술개발전망이 다소 제한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세리자노 대사: 그건 문제입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도 가령 우주항공 산업의 경우에 MTCR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하기에 논의된 대로 아르헨티나는 MTCR가입과 함께 미사일개발활동을 축소했다] 핵 기술의 경우에, 비록 아르헨티나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위한 일부 수입이 국제수출규제체제에 의해 규제되고 관리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주 성공적인 핵 프로그램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수출규제체제에의 참여가 양심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경우에 MTCR의 활동이 평화적 목적의 우주항공프로그램의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출허가는 개별적으로 주어 집니다. 이런 종류의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가입국이든 아니든 수입국이 그 기술로 무엇을 하려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제 생각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나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관련 물품을 수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요청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동차 산업과 원자로에서 쓰이는 흑연 같은 이중용도 품목을 중개상을 통해 수입할 것입니다. 수출통제체제가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MTCR와 협상해야 하는 나라들, 혹은 MTCR 가입국들도 염려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는 별도의 타협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1990-1991년에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1993년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우주항공프로그램이 있고 현재 우리는 미우주항공국(NASA)과 협력해서 아르헨티나 기술을 이용한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사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브라질 알칸타라(Alcantara)에 있는 발사단지에서 브라질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미국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에 있는 발사대를 이용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기술로 완성된 위성이 3대가 있고 2008년에 아콰리우스(Aquarius) - 바다의 염도를 측정하는 위성-가 완성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당시 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미사일개발 프로그램]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미사일 시스템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투명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공군은 더 이상 우주항공 프로그램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주항공위원회(CONAE)라는 민간기관이 우주항공 프로그램을 지휘합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여러 나라들이 반드시 발사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자국이 보유한 우주항공프로그램 능력과 관련된 기술을 무시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리자노 대사: 그들이 깜박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국이 미사일 분야에 갖고 있는 역량을 대부분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유엔의 제안에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유엔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가 그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우주항공 프로그램에 관한 특정 국가의 태도에 대해서는 분석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탄도미사일확산을 금지하는 헤이그 행동규약 (Hague Code of Conduct [HCOC])

NIS Export Control Observer: 헤이그 행동규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리자노 대사: 그건 철저히 자발적인 조치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 로 마치 “존재하지 않는 체계”와 같습니다. 내 의견으로는 헤이그 행동규약이 실제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유엔에 의한 강제적 협약이 되어야 합니다. 각국이 명목상 일종의 유엔 등기소에 발사신고를 해야 하는 조약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 혹은 4년 후에는 국가 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저의 생각입니다. 헤이그 행동규약은 중요한 구상으로, 유엔이 관여해야 합니다. 117개국이 HCOC에 조인했으나 47-48개국만이 선언서를 제출했습니다. 각국에 기술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선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총회에서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대사께서 생각하시기에 HCOC에 있는 조치들 중에 조인국 간의 신뢰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보유 미사일의 공개입니까? 발사 예고입니까?

세리자노 대사: 미사일과 관계없는 위성발사까지 포함한 모든 발사에 대한 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발사에 대한 지역적 통지가 중요합니다. 분쟁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 감사합니다. 대사님.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 is devoted to the analysis of WMD export control issues in the East Asian region. It is published bi-monthly for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community by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IIS),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lthough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to check sources and verify facts, CNS cannot guarantee that accounts reported in the open literature are complete and accurate. Therefore, CNS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by errors or omissions. Statements of fact and opinion expressed in the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alone and do not imply the endorsement of the editors,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r the U.S. Government. Copyright 2005 by MIIS. May be freely reproduced and distributed with proper citation.

Editor-in-Chief

Jing-dong Yuan

Associate Editor-in-Chief

Stephanie Lieggi

Senior Consultants

Leonard Spector

Associate Editors

Andrew Diamond

Daniel Pinkston

Contributors

Randall Beisecker

Markus Binder

Patrick Heiman

Dave Kim

Mark Wuebbels

Victor Zaborsky

Reviewers

Richard Cupitt

Mitsuro Kurosawa

Evan Medeiros

Phillip Saunders

Carlton Thorne

Copy Editor

Lisa Donoho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email: asiaexcon@miis.edu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460 Pierce Street

Monterey, CA 93940